

2010년 민선5기

시민참여 좋은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N · O · W · O · N · G · U

시민참여 좋은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

Contents »

01 공동위원장 인사말 04

02 준비위원회 활동보고

- 준비위원회 구성 11
- 분과별 활동보고 13
- 활동결과 종합 16

03 노원구의 목표와 방향

- 미래를 준비하는 노원구 18
- 구정목표 19
- 구정방향 20

04 민선5기 노원구의 과제

- 당선자공약 22
- 준비위원회 제안 과제 23
 - 교육분야 24
 - 녹색분야 40
 - 복지분야 46
 - 경제분야 56
 - 문화분야 73
 - 기타과제 82

N · O · W · O · N

01

공동위원장 인사말

공동준비위원장 나해집

(기독교장로회 평화운동본부 공동의장)

노원구청 민선5기를 출범하면서 향후 4년간 구정의 방향을 가늠하게 하는 백서를 발간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노원을 만들기 위해서 짧은 기간이지만 준비위원회에서 머리를 맞대고 노원구가 걸어가야 할 방향을 이 백서 안에 담아내었습니다.

새롭게 취임하게 되는 구청장의 가치와 공약들 그리고 비전을 담아 이 백서 안에 녹여 내었습니다.

이번 노원구의 민선5기는 과거 구정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정치경험을 실험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선거과정에서 구청장 단일후보를 내고 노원의 시민단체와 민주당을 비롯하여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신당이 함께 참여했기 때문입니다.

그간 준비위원회에서는 노원구청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실무자들과 구정에 대해 논의 과정을 거쳤으며 그것을 바탕으로 준비위원회에서는 실현 가능한 일들을 백서 안에 담아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원구의 구정을 위해 애쓰고 있는 많은 공무원들과 지역 안에서 자신의 몸을 바쳐 헌신하고 있는 시민단체들의 실무적인 경험들과 교수들의 전문적인 지식들 그리고 지역 구민들의 요구가 반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구나 민주당이 아닌 타 정당들이 함께 구정을 위해 자신이 쌓아온 경험들을 백서 안에 반영한 것은 아름다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준비위원회에서는 백서를 발간하여 새로이 취임하는 구청장에게 전달할 것입니다.

바라기는 이 백서 안에 담긴 내용들을 구정에 잘 녹여내어 노원구가 사람이 사람 대접받고 살아가는 살기 좋은 노원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의 건강성은 그 사회의 약자들에 대한 배려와 관심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노원구 안에 있는 약자들에 대한 배려가 어느 구에 못지않게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노원지역의 건강성을 회복하여 노원구는 서울시민이 살고 싶은 곳, 자녀들이 미래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곳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서 발간을 계기로 구청장의 비전인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의 디딤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혁신도시, 참여와 소통으로 주민에게 신뢰받는 도시, 창의와 활력이 넘치는 꿈과 희망이 이루어지는 도시,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이 함께 어우러져 다음세대를 준비하는 지속가능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백서를 발간하기까지 혼신의 힘을 다 기울여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모아주신 준비위원들과 바쁜 구정에도 함께 협력하며 도와주신 구청의 모든 직원들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백서에 담긴 내용들이 활자 안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노원 구민들의 삶 속에 녹아들어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훈훈하게 하는 함께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는 대동세상을 만들어가는 단초가 되기를 바랍니다.

공동준비위원장 서종화

(여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

한 달 남짓한 ‘시민참여 좋은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 활동을 마치고 구민 여러분께 그 결과를 보고 드립니다.

짧은 기간이었지만 구민 여러분의 많은 조언과 준비위원님들의 열정으로 무사히 준비위 활동을 마치고 보고서를 내게 된 것을 매우 기쁘고 뜻깊게 생각하며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민선5기 김성환 노원구청장 당선자께서는 지난 선거과정에서 모든 정책의 중심에 ‘사람’을 놓고, 이를 위한 구체적 목표로 ‘교육’ ‘복지’ ‘녹색 즉 환경’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이를 목표로 한 모든 정책 결정과정은 노원구를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주민들께서 함께 참여하는 가운데 이루어 낼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저희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당선자의 의지와 구민 여러분의 선택을 받들어 지난 4년 동안 민선4기 구청장께서 펼친 구정에 대해 보고받고, 앞으로 4년 동안 민선5기 구청장께서 펼쳐 나갈 사업에 대해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들어 정리하였습니다. 좋은 정책은 계승하고 주민들의 실생활과 동 떨어진 정책은 폐기 및 수정을 건의 하였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적은 인력으로 4년 동안 노원구의 주요 정책방향을 만들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고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 준비위원회에서는 큰 방향과 당선자께서 공약한 사업들에 대한 실천방안을 위주로 정리하였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향후 가칭 ‘정책협의회’를 통해 채워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준비위원회 기간 동안 좋은 의견을 전해 주신 구민 여러분과 혼신의 노력을 다 하신 준비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공동준비위원장 이상희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민선5기 노원구청은 새로운 실험대에 올랐습니다.

지난 선거과정에서 전국적으로 선거의 새로운 쟁점이 되었던 ‘선거연합’의 움직임 중에 노원의 선거연합은 서울 각 구청장 선거연합의 ‘표준’이 되었습니다. 한 번도 시도된 적 없는 ‘지방공동정부’를 공개 합의하고 야 4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의 목표와 과제를 설정하고 치른 선거에서 우리는 공동의 승리를 쟁취했습니다.

선거 이후 한 달이 조금 안되는 기간 동안 우리는 또 이제껏 없었던 시도를 했습니다. 구청장직 인수위원회를 ‘시민참여 좋은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3당과 시민단체가 공동으로 구성해서 앞으로 4년 동안의 구정을 구상하기 위해 서로의 입장과 상황의 차이를 넘어 공동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우리 준비위원회는 각 분야 전문가, 각 당과 사회단체에서 추천한 실무자 등 30명이 넘는 준비위원이 참여해 규모 면에서도 ‘서울 최대’라는 평가 속에 주목을 받았고 짧은 기간 업무보고와 각 분과별 토론을 치열하게 벌여내며 지방공동정부라는 이름으로 출발하는 서울 자치구 중 ‘표준’으로 이야기 되고 있습니다.

그 결과물로 이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공약과 선거연합의 ‘합의정신’에 입각한 이 보고서는 준비위원들의 정열과 헌신이 녹아 있습니다. 하지만 짧은 운영기간이 갖는 한계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미흡한 부분도 많고 미처 다루지 못한 부분도 많이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구정 4년을 세밀하게 계획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공약과 합의가 예측하지 못한 실제 구정운영에서의 기술적 부분들을 다 담아내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수정되고 추가될지라도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이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자 하는 모든 준비위원들의 고민이 진행중인 그대로 담겨 있는 것이고, 그런 면에서 완결 지어진 보고서가 아닌 진행중인 보고서라 할 수 있습니다.

시민참여 좋은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는 형식적인 활동을 마무리하지만 앞으로 구성될 ‘정책협의회’를 통해 그 정신을 이어 나가고 논의된 과제들의 실현을 위해 또 새로운 시도를 해 나갈 것입니다.

저는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의 노원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어떤 관점에서 보면 선거연합에 참여하고 준비위원회를 구성한 단위 중 가장 이질적인 조직, 정당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안과 정책에 대해서는 다른 정당과 작지 않은 입장 차이를 갖기도 했었고 앞으로도 때때로 그럴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선거연합의 기본정신인 그동안 일부분 존재하던 노원구정의 불합리함을 바로잡아 합리적인 구정을 만들고, 노원구민들이 조금 더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보편적 복지의 실현’이라는 공동목표를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김성환 구청장 시대’가 새롭게 여는 공동지방정부의 실험이 구민을 위해 좋은 결과를 낳고 노원의 실험이 또 하나의 성공적인 표준으로 자리매김되는 앞으로의 4년을 꿈꾸어 봅니다.

노원구민들에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노원구청장과 노원구청을 꿈꾸어 봅니다. 저희 민주노동당과 당원들도 선거연합과 공동지방정부의 참여가 잘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하기를 희망합니다.

준비위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여러분의 노력과 열정이 정말 ‘좋은’ 노원을 만들어 나가는 준비의 동력임을 확신합니다.

N · O · W · O · N

02

준비위원회 활동보고

준비위원회 구성

□ 구성 : 30명

○ 공동위원장

- 나해집 (기독교장로회 평화운동본부 공동의장)
- 서종화 (예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
- 이상희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기획조정분과 위원장 : 송재혁 (교육복지재단 교육과미래 상임이사)

○ 교육행정분과 위원장 : 홍기준 (한국지방정치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생활환경분과 위원장 : 김재현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 도시교통분과 위원장 : 이영한 (서울산업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건축학부 교수)

□ 업무분장

- 기획조정분과 : 준비위원회 활동총괄, 취임식 준비
- 교육행정분과 :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시설관리공단
- 생활환경분과 :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재정경제국 산업환경과
- 도시교통분과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 활동개요

1. 기간 : 2010. 6. 14(월) ~ 6. 29(화)
2. 장소 : 노원문화예술회관 2층 회의실
3. 활동내용

일 자	내 용
6월 14일(월) 오후 4시	준비위원회 전체모임 (상견례 및 이후활동방향 토론)
6월 15일(화) 오후 2시	교육행정분과 업무보고 및 질의, 제안
6월 16일(수) 오후 2시	생활환경분과 업무보고 및 질의, 제안
6월 17일(목) 오후 2시	도시교통분과 업무보고 및 질의, 제안
6월 18일(금) ~ 20일(일)	분과 간사모임(18일 오후2시), 자료요구 및 자료검토
6월 21일(월) 오전 10시	교육행정분과 분과토론 및 부서별 보충질의
6월 22일(화) 오전 10시	생활환경분과 분과토론 및 부서별 보충질의
6월 23일(수) 오전 10시	도시교통분과 분과토론 및 부서별 보충질의
6월 25일(금) 오후 2시	분과별 활동내용 보고 및 전체토론
6월 26일(토) ~ 6월 29일(화)	분과별 보고서작성 및 총괄정리

□ 위원명단

구 분	기획조정분과
위원장	송재혁 (교육복지재단 교육과미래 상임이사)
위원	이경철 (무형문화제 제49호 송파산대놀이 이수자) 나기웅 (Seoul Brass Ensemble 단장)
구 분	교육행정분과
위원장	홍기준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간 사	홍기돈 (민주노동당 서울시당 의정지원부장)
위 원	정창수 (좋은예산센터 부소장) 최정화 (참교육학부모회 동북부지회장) 김 근 (서강대학교 중국문화학과 교수) 정성욱 (국민참여당 노원구지역위원회 청년위원장) 서진아 (전 마들주민회 대표) 김지선 (성공회 노원나눔의집 실장)
구 분	생활환경분과
위원장	김재현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간 사	강시원 (환경을 사랑하는 중랑천 사람들 사무국장)
위 원	김진홍 (중앙대학교 토목공학과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사무처장) 곽현희 (서울시 보육시설연합회 회장) 김종덕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사무국장) 이재환 (국민참여당 노원구지역위원회 운영위원) 김성수 (한국뇌성마비장애인협회 '청우' 대표)
구 분	도시교통분과
위원장	이영한 (서울산업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간 사	노종학 (국민참여당 노원구지역위원회 재개발재건축특별위원회 위원장)
위 원	변창흠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김수현 (세종대학교 도시부동산대학원 교수) 이환주 (노원구의회 5대의원) 김종기 (노원구의회 5대의원) 이강현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부위원장) 주점숙 (국민참여당 노원구지역위원회 여성위원장)

□ 교육행정분과

○ 1차 회의

- 일시 : 6월 15일(화)
- 주요내용 : 행정관리국, 재정경제국, 감사담당관 주요업무보고 청취

○ 2차 회의

- 일시 : 6월 21일(월)
- 주요내용 : 오전에는 주요의제와 관련하여 위원간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공무원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오후에 담당 부서 직원에게 추가 질의를 진행함. 2차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별 제안 사안을 정리하여 제출.

○ 주요논의사항

교육관련

- 기존 교육정책의 대폭 수정이 필요함.
- 보편적 복지와 연계한 교육재정확대가 필요함.
-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자치행정관련

-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고 시행되어야 함.
- 기존 사업에 대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수정 · 중단 · 사업전환 등을 진행해야 함.
-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여야 함.

□ 생활환경분과

○ 1차 회의

- 일시 : 6월 16일(수)
- 주요내용 : 주민생활지원국, 재정경제국(산업환경과), 보건소 주요업무 보고 청취

○ 2차 회의

- 일시 : 6월 22일(화)
- 주요내용 : 주요의제 관련 위원간 상호토론 및 추가질의

○ 주요논의사항

사회복지관련

- 장애인·노인 : 장애인 정책을 담당하는 담당관 제도를 통해 장애인 처우 개선을 위한 모니터와 사업이 전반적으로 진행되어야 함.
- 보육 : 모든 권역에서 보육관련 정보와 문화를 공유해야 하고 질 좋은 보육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함.
- 아동·청소년 : 위기아동·청소년,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의 돌봄 시스템 및 예방시스템 등 종합대책이 마련되어야 함.
- 사회복지전달체계 : 지역 사회복지협의체 위상과 역할을 재구성하고 자원봉사센터 부활을 통해 민간 서비스 역량을 강화해야 함.

녹색관련

- 환경 : 에너지 저감 대책 마련, 환경관련 의제사무국 등 기구설치 및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환경교육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녹색도시 실현을 위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함.
- 지역경제순환 시스템 :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일자리 TF등을 구성하고 사회적 기업 육성, 커뮤니티 비즈니스 등 지자체에서 총괄적으로 책임지는 시스템 필요함.
- 환경관련 부서 개편 : 녹색구정 활동을 위해 환경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개편 필요함.

문화관련

- 문화예술가를 육성하는 인큐베이팅 정책과 주민들과 소통하는 커뮤니티 문화 정책을 통해 모든 구민이 즐겁게 소통하는 문화를 정착시켜야 함.

□ 도시교통분과

○ 1차 회의

- 일시 : 6월 17일(목)
- 주요내용 :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주요업무보고 청취

○ 2차 회의

- 일시 : 6월 23일(수)
- 주요내용 : 오전에는 주요의제와 관련하여 위원 간 상호토론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추가적인 공무원 질의사항 등을 정리하여 오후에 담당 부서 직원과 추가 질의 등을 진행함. 2차 회의내용을 바탕으로 위원별 제안 사항을 정리하여 제출하기로 함.

○ 주요논의사항

도시관리국 관련

- 높은 비율의 주거형태인 공동주택에 대한 차별화된 공공지원 서비스 필요함.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정책방향 검토 필요함.
- 디자인, 문화 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함.
- 주택과, 도시개발과 등,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해 제안함.

건설교통국 관련

- 자전거도로 운영관리에 대한 발전적 검토 필요함.
- 하천에 대한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검토 필요함.
- 건설관리과등, 과별 주요 업무에 대해 제안함.

준비위원회 활동은 구정 전반에 대한 업무현황과 주요업무에 대한 분과별 토론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또한 준비위원회 운영은 준비위원들이 속한 분과만이 아닌 다른 분과의 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해당 부서는 다르지만 분야별 관계성이 있는 의제가 종합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민선4기 구청장이 진행하거나 추진하고 있는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지속가능여부에 대한 타당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당선자의 공약 또한 실현가능성을 검토하였고 공약의 구체적 시행방안이 수립될 수 있도록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준비위원회는 이러한 활동을 통해서 구청장 당선자가 제시한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이라는 비전에 동의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이러한 비전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 구정목표와 구정운영 방안에 대한 토론을 통해 소통과 참여 그리고 혁신행정을 바탕으로 하는 분야별 5개의 도시상을 제시하였습니다.

보고서는 분야별로 정리하였고 토론과정에서 제출된 쟁점과제와 향후 지속적 토론을 통해 구체화시켜야 하는 과제를 따로 구분하지 않고 분야별 사업과제에 검토 및 제안의 형태로 정리하였습니다.

N · O · W · O · N

03

노원구의 목표와 방향

인구 62만명의 노원은 서울에서 두 번째로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는 자치구입니다. 그동안 노원은 10년, 20년 뒤의 미래를 준비하기 보다는 현재에 안주해왔습니다. 이제 노원은 미래를 준비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명쾌한 비전과 강한 추진력으로 62만명의 노원주민을 넘어 1,000만명의 서울시민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자치행정을 선도하는 도시로 거듭나야 합니다.

앞으로의 노원구정은 노원구민 모두가 더 나은 미래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해야 합니다. 이러한 미래는 구청의 일방행정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주민과 소통하고 주민들이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통과 참여로 주민과 행정기관이 서로 신뢰하고 협력해야 가능합니다.

미래도시는 소통과 참여 그리고 혁신행정을 기반으로 만들어 질 것입니다.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



□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도시

우리 아이들의 다양한 가능성이 존중받고 창의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경제적 차이 등 개인이 처한 조건의 차이에 의해 보편적 교육의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녹색도시

우리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다양성이 존중되고 생태계가 보존되고 순환되어 녹색 삶이 실현되는 도시여야 합니다.

녹색 삶의 실현을 위해서는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행정을 펼쳐야 합니다.

□ 꿈과 희망이 현실이 되는 복지도시

베푸는 복지가 아닌 노원주민 모두가 자신의 꿈과 희망을 실현해 갈 수 있는 평등사회를 지향하는 복지도시여야 합니다.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넘어 일자리, 교육, 주거 등이 함께 제공되는 종합적인 복지행정이 시행되어야 합니다.

□ 일자리가 넘치는 역동적 경제도시

역동적이고 창조적인 혁신적인 좋은 일자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일할 수 있는 활력있는 경제도시여야 합니다.

지역의 혁신역량을 지역경제발전의 기반으로 삼아야 합니다. 더불어 행정기관이 직접 나서서 공공이 주민의 삶의 질을 책임지는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야 합니다.

□ 소통과 참여로 만들어가는 문화도시

주민이 행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행정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소통과 참여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 창조적 문화도시, 창조적 혁신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N · O · W · O · N

04

민선5기 노원구의 과제

업무보고와 분과별 토론을 통해 당선자 공약의 시행방안을 검토함.
 당선자 공약은 모두 6개 분야 30개로 구성되어 있음.
 이들 공약에 대해 준비위원회에서는 크게 이견이 제출되지 않았음.
 다만 시행방안의 구체성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토론을 통해 추가적인
 의견을 첨부하여 분야별 과제에 포함시켰음.

□ 당선자 공약내용

분 야 별	사 업 명	주관부서
녹색복지도시 노원 (6)	건강 100세 상담센터 운영	지역보건과
	일촌 나눔 공동체 전면 실시	주민생활지원과
	노원 환경교육센터 설립 및 운영	산업환경과
	노원 둘레길 조성	공원녹지과
	축구 및 배드민턴 전용구장 신설	공원녹지과
	자전거 전용도로 전면 재검토	교통지도과
학생과 학부모가 행복한 교육중심 노원 (5)	친환경 무상급식, 노원구 고등학생까지 제공	교육진흥과
	아이들의 체험학습을 강화할 노원 과학관 건립	교육진흥과
	남한산 초등학교(혁신학교) 모델을 노원 전역에 확산	교육진흥과
	휴먼 라이브러리(지적 도서관) 조성하여 다양한 정보 제공	문 화 과
	지자체 예산 5% 교육에 투자	교육진흥과
일자리가 넘치고 활력있는 경제도시 노원 (4)	패션 디자인 산업의 중심으로 육성	산업환경과
	NIT(나노정보기술) 산업단지 조성	산업환경과
	서울 동북부 지역의 비즈니스 중심이 될 제2코엑스 조성	정책사업기획단
	공공일자리 창출로 일자리 확대	희망일자리추진반
생활 중심의 노원 (8)	상계 3·4동 뉴타운 문제 해결	도시개발과
	1호선, 4호선 지하화 추진	정책사업기획단
	경전철 동북선 은행사거리부터 방학역 경전철까지 연장	정책사업기획단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으로 패션디자인 거리 조성	도시디자인과
	성북역 부지 첨단 벤처타운 건립	정책사업기획단
	법원이전부지에 서울대 아동병원 유치	의 약 과
	공동주택 재건축 연한 단축 및 지원센터 설립	주 택 과
	지역난방 요금체계 전면 재조정	산업환경과
아이 키우기 좋은 노원 (4)	24시간 보육시설 동별 운영	가정복지과
	노원구 내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민간보육시설 지원	가정복지과
	유아보육 수당 지급 및 확대	가정복지과
	영·유아 예방접종 전액 지원	지역보건과
맑고 투명한 구정이 펼쳐지는 노원 (3)	시민참여정관제 도입	감사담당관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기획예산과
	주민의견 실시간 수렴 및 100% 정보공개	감사담당관

준비위원회는 활동기간 분과별 토론을 통해 노원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근거한 다양한 과제를 도출하였음.

이렇게 도출된 과제를 구정목표에 맞게 재구성하여 교육, 녹색, 복지, 경제, 문화의 5개 분야로 분류하였음. 다만 이러한 5개 과제에 포함시키기 어려운 과제들은 기타과제로 분류하여 정리하였음.

과제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 준비위원들이 제출한 의견들의 유사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의제들을 서로 묶어 종합적 이행이 가능하도록 정리하였음. 나열식으로 과제의 숫자만 늘리는 것보다 구체적 이행방안의 실현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였음.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정리된 과제는 모두 58개로 교육분야 13개, 녹색분야 5개, 복지분야 9개, 경제분야 14개, 문화분야 8개, 기타 9개임.

교육분야 초·중·고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교육진흥과					

□ 선정이유

-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이 급식 과정에 차별받는 일이 없어야 할 것.
- 이윤추구를 위한 위탁급식업체에 아이들의 급식을 맡겨서는 안 될 것.
- 친환경 먹거리를 통해 아이들의 건강한 발달을 돕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기 위한 방안 모색
- 안정적 예산확보를 통해 실현가능한 방안 마련 - 단계적 실시

□ 제안내용

- 친환경 무상급식을 위한 지원 조례 제정
- 2010년 하반기 : 학교급식지원센터 건설 및 학교급식협의회 구성
 - 학교급식지원센터 : 서울시 학교급식지원센터와 연동하여 물류센터로 기능할지 배송센터로 기능할지는 판단
 - 학교급식협의회 : 구청, 의회, 북부교육청, 학부모회, 생산자단체, 시민단체, 학교 등으로 구성 공동식단지원, 안전한 학교급식 제공을 위한 협의
 - 학교급식 위탁운영을 직영급식으로 전환하기위한 적극적 노력이 선행되어야 함.
-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시행시기와 시행대상, 시행 규모를 결정해야 함. 그러나 최초 시행시기는 2011년을 목표로 하고 이에 따른 준비를 2010년 하반기에 시행해야 할 것임.
- 무상급식의 단계적 확대는 현재까지 초등학생부터 시행하는 것이 기본적인 인식임.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일부 의견으로 중학생이 초등학생보다 학교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을 뿐 아니라, 자녀양육을 위한 비용이 더 많이 듦으로 중학교부터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도 있음.

교육예산 5% 투자 및 교육지원센터 설치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중기
과(원)	교육진흥과					

□ 선정이유

- 무상급식만으로도 5% 초과 예상
- 지역교육복지정책 부재
 - 지역의 장기적인 계획의 부재로 인한 단발성 사업운영
 - 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하기 어려움.
 - 지역의 요구나 필요에 의한 인프라구축이 어려움.
 - 지자체의 사업 중 저소득 아동·청소년 교육지원사업 비중이 매우 낮음(노원구 전체예산의 2.4%, 2010년).
 - 교육사업에 대한 컨설팅과 모니터링 부재
 - 학생 및 학부모에게 통합적인 정보제공이 어려움.
- 실제 가장 필요한 저소득학생에 대한 예산 확보 미흡 : 저소득 학생을 위한 지원근거 마련 필요.

□ 제안내용

- 영어교육에 편중되어있는 노원구의 교육정책을 총체적으로 검토하고 보편적 복지를 기반으로 하는 교육정책을 수행할 별도의 교육지원기관으로 교육지원센터를 설치
- 교육지원센터는 기존의 교육비전센터를 전환하는 방식으로 설치하고 교육복지사업과 기존의 교육비전센터가 수행해온 역할 등을 복합적으로 수행
- 교육지원센터의 설립구상 및 기능
 - 교육청과 MOU체결을 통한 공동운영/교육에 관한 교육청과의 논의창구
 - 혁신학교, 무상급식,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사업, 지역교육활성화 사업 논의
 -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사업 수행

- 준비물 없는 학교만들기(준비물 은행설치 등)
- 학생 및 학부모 각종 상담 및 교육·지도 사업
- 저소득 학생을 위한 야간 아동·청소년교육활동 확대 필요
- 위기학생 교육활동 지원
- 저소득 학생 개별 맞춤형 교육활동 지원

혁신학교 30개 설치 - 남한산초등학교(혁신학교)모델 확산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교육진흥과					

□ 선정이유

- 혁신학교 설치에 구청장 당선자의 공약이기도 함.
- 그러나 혁신학교에 대한 이해와 혁신학교의 상이 없는 상황.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고려한 기구 및 연구 등의 사전 노력이 필요함.

□ 제안내용

- 선정기준안 마련 : 학교 학생수, 학급당 인원수 고려/학교구성원의 의지
- 저소득층 학생이 밀집해있는 지역의 학교(교육복지투자 우선지역학교, 좋은학교 자원학교)를 우선 고려할 필요성이 있음.
- 모델이 될 수 있는 초, 중, 고를 중심으로 시범 시행 후 확산 가능성 고려
- 혁신학교 건립의 준비과정으로서 학교 내 '혁신학급'을 운영하는 것도 고려했으면 함(프랑스 일반학교의 프레네학급).
- 공립형 대안학교 모델로서의 혁신학교도 고려해보았으면 함(프랑스의 프레네학교).
- 서울시 교육청의 혁신학교 300개 운영결정 사항에 따라 구의 연차적 운영방향 결정 필요
- 예산편성항목은 서울시교육청과 협의하여 추진

※ 실현경로

- 혁신학교 건립을 위한 연구 및 준비위원회 구성
- 혁신학교준비를 위한 협의체구성(북부교육청, 학부모회, 시민, 학생, 교사)
- 우리구 실정에 맞는 혁신학교 개발(미래형)
- 혁신학교 설명회 개최
- 학교 하드웨어 지원방식에서 프로그램 지원방식으로 전환을 위한 로드맵 필요

노원과학관 건립관련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교육진흥과					

□ 선정이유

- 지역의 과학관 건립에 대한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 : 예산확보의 실현가능성
- 과학체험시설 운영예산에 대한 자료조사 필요 : 제대로 된 과학관은 건립에도 많은 돈이 들지만, 운영에도 많은 예산 필요
- 과학관 이용대상에 대한 정확한 욕구 및 필요 조사
- 과학관을 통해 얻고자 하는 목표 점검
- 현재 운영중인 서울영어과학센터 운영현황 및 수요조사 후 검토했으면 함.
- 시설 건립도 중요하지만 과학의 경우 지속적인 리모델링 등이 필요 하므로 예산계획에 포함되어야 함.

□ 제안내용

- 서울영어과학센터를 과학관으로 내실화하는 방안 검토했으면 함.
- 민자유치를 통한 시설 등을 고려한다면 아동청소년의 진로체험 학습의 장이 될 수 있는 ‘키자니아’ 등으로 전환도 고려했으면 함(일본의 키자니아가 현재 강남에 운영되고 있음). - 청소년직업체험센터와 연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현재 구에서 추진하는 건립사업이 너무 많아 추진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
- 아이들의 과학에 대한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지원방안
모색 : 예) 이동식 과학버스 운영

각급 학교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 개선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교육진흥과					

□ 선정이유

- 교육경비 지원에 대하여 학교에서 예산지출 비리가 발생한 예가 있음 (시교육청).
- 교육정보화, 급식시설 개선, 교실내외 환경개선 등에 교과부, 시교육청 지원 등과 중복되는 것을 철저히 조사할 필요 있음.
- 시설 등 하드웨어 지원에 우선하여 학교를 개방한 ‘지역사회학교’ 등의 지역주민 대상 프로그램 지원 등은 없음.
- 시설도 학교의 학생이나 교사 등에게 유용하고 필요한 시설인가를 고려해야 함.

□ 제안내용

- 교육경비 보조의 지원내역에 대한 재구성 필요.
- 교육경비 보조 선정위원회 구성(사업의 필요성, 우선순위 고려).
- 시설뿐만 아니라 학교에서 시행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지역사회 주민 대상의 프로그램도 지원할 수 있어야 함.
- 일부 지자체와의 교육경비보조의 차이를 줄일 방안 모색(예산확대 가능성 타진).

지역 아동·청소년 위기에방 및 안전망 구축을 위한 대안 마련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가정복지과					

□ 선정이유

- 지역내 위기아동·청소년수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보호관찰 청소년이 500명이 넘음) 이에 대한 체계적 대책이 전무함.
- 지역내 위기아동을 위한 시설은 ‘청소년쉼터’가 유일하며 위기아동·청소년 상담, 학교 밖 청소년대안학교, 드롭인센터, 쉼터 등 다양한 형태의 위기아동·청소년 이용 공간이 없는 현실임.

□ 제안내용

- 지역내 위기아동·청소년 실태 및 상황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가 필요함.
- 교육청과 연계한 위기청소년지원센터 구축(교육청 위센터 공동운영 등 고려).
- 지역사회 위기청소년 지원을 위한 안전망 구축
- 일시보호, 중·장기보호, 대안학교, 쉼터, 문화공간 등 다양한 형태의 예방공간 마련
- 위기 청소년을 위한 시설의 지역 내 유치

지역아동센터 지원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가정복지과					

□ 선정이유

- 현재 11개 지역아동센터에 320~390만원의 지자체 지원
- 실질적인 저소득층 가정 아동청소년에 대한 돌봄과 교육기관임에도 운영 및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임.

□ 제안내용

- 저소득층이 밀집한 지역의 특성상 너무 적은 수의 지역아동센터를 지원하고 있음.
- 지역아동센터 지원조례 마련(중구, 성동구, 광진구 등 이미 조례가 있음).
- 지원조례를 통한 실질적 지원(중구는 인건비 100만원 더 지원).
- 지역아동센터가 나이트케어 등을 통해 저소득층 맞벌이 부부의 자녀 보호 기능 추가.

청소년 공부방 개편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교육진흥과					

□ 선정이유

- 1980년대 설립 이래 주로 사설도서관과 같은 열람실 기능을 수행함.
- 시설이 노후하여 청소년과 주민들이 이용하는데 매우 불편함.
- 공부방을 유지하는 정도로 인건비를 사용하고 있어 프로그램 운영과 기관연계 등의 콘텐츠가 전무한 상황임.
- 청소년들이 외면하고 있으며 마을문고도 면학을 위한 열람실 기능도 실제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음.

□ 제안내용

- 청소년공부방 개편을 위한 준비위원회 구성.
- 지역내 청소년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실질적 공간이 거의 없는 상황에서 청소년지역아동센터로 개편 위탁하거나 마을단위의 청소년문화센터로의 전환이 필요함.
- 시설에 대한 리모델링을 통해 주민 및 청소년의 이용접근성을 높여야 함.

청소년 직업체험 센터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가정복지과					

□ 선정이유

- 서울시립직업체험센터 ‘하자’는 문화분야를 특화하여 직업, 교육, 고용이 통합적으로 운영/제한점은 재주를 가진 청소년 중심
- 실질적 직업체험이 되기보다는 일회적이고 분절적인 체험과 프로그램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음.
- 생애진로를 모색하고 일 - 배움 - 미래가 연결되는 직업체험센터는 어디에도 부재한 상황임.

□ 제안내용

- 직업체험센터의 목표
 - 학교체계, 직업교육체계 등을 연계한 청소년 직업체험 및 자립지원체계 강화
 - 분절적인 체험으로 직업 맛보기라는 한계를 넘어 직업체험(훈련과)교육이 만나고 고용현장이 만나는 통합적 접근 방식이 필요함.
- 방향제안
 1. 직업교육과정을 개별화하여 개인의 적성과 능력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과 서비스분야 다양화를 꾀함.
 2. 학교교육과 연계한 진로상담 노동시장 정보 등 제공하는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서비스
 3. 지역 일터와 연계하여 직업기초기술 및 현장교육 강화된 직업교육과정 설립
 4. 지역의 인증서를 통해 지역 내에서 유용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고 계속 교육의 기회를 열어주기 위해 국가자격증과 연결고리에 대한 모색과 기반을 조성

5. 의무교육과정에서 제외된 19세~24세(청소년 기본법상의 청소년제한 연령)청소년들에게도 안정된 직업 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교육 제공.
6. 노원구만의 특화된 진로모델센터 부설 '손작업장 학교(센터)' 설립을 통해 드러내고 보여줌. 또한 이는 추진 계획에 있는 도시디자인과의 패션 디자인거리와 연계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극대화 함.

□ 방법

○ 대상

청소년의 특성을 고려하여 일반청소년, 위험청소년, 위기청소년으로 분류하고 그에 맞는 기초 서비스를 제공하고 센터 내 프로그램으로 단계 이동할 수 있는 차별화된 대상별 전략 필요

분 류	분류이유	서비스
일반 청소년 (65%)	특별한 결점을 갖지 않고 바로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청소년	센터 내에 제공되는 서비스를 욕구 사정을 통해 적절히 제공 직업정보, 지역노동시장정보, 진로상담, 도제교육, 작업장학교 등
취약 청소년 (25%)	배움에 어려움이 있는 청소년 (일상적인 생활관리의 어려움, 공적급여를 받고 있는 청소년)	다른 기관들과 파트너십을 통한 부가적인 서비스 지원 및 일상관리프로그램 지원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제공
위기 청소년 (10%)	정신건강장애 건강, 약물, 성문제, 가출, 학대, 자살시도, 폭력전과 불안정한 거주 청소년	위기상태에 대한 위기관 부가서비스 지원 복합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집중적인 지원/옹호 서비스 및 일상관리프로그램 지원 후 센터 내 프로그램 제공

○ 서비스 내용

1. 센터 내 일상지원서비스

1) 진로교육 및 상담(학교지원프로그램 포함)

: 자기이해상담-직업정보(지역노동시장정보포함)-미래설계 서비스

: 학교교육과정과 연계한 학교 내 '진로설계워크샵', 지역아동센터, 공부방 '진로설계워크샵' 지원

- 2) 직업체험 및 직업도제
 - 단기 직업체험 프로그램 마련
 - 도제훈련분야 개발 도제커리큘럼 개발 및 적용
예술과 디자인, 상업, 건설 및 건축물 내부환경 조성, 엔지니어링, 건강 및 보호, 정보기술, 여가 및 여행, 제조업, 과학, 미디어, 의사 교환 및 정보생산, 소매와 유통서비스, 토지 및 환경, 예술 및 오락 등
 - 지역 인증을 통한 지역 내 교육생 활용안 마련
 - 3) 진학, 아르바이트, 인턴, 직장체험 등 고용과 연계한 지원프로그램
2. 손작업장 학교를 통한 특화된 직업센터
 - 1) ‘손작업장 학교’ 특화된 부설기관 설립
 - 패션, 주얼리, 목공, 도예 등 다양한 손작업분야의 디자인 특화 교육 실시
 - 센터 내 프로그램 도제, 해외 유학생 배출, 현장배움터 인턴 및 직장체험 연결, 청소년 창업지원
 - 손작업장 축제 및 파티를 통한 적극적이고 생동감 있는 홍보
 3. 취약,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진로지도 전 라이프 스킬 과정
 - 1) 직업 진입을 위한 라이프 스킬 교육
 - 위험, 위기 청소년들을 위한 라이프 스킬 교육과정 마련
 4. 20살 이상을 위한 직업 진입 과정
 - 센터에서 발행한 인증서를 기반으로 지속적인 교육의 열림을 활용 자격취득교육
 - 도제현장으로의 취업, 관심분야 인턴 직장체험, 직업진입을 위한 코칭 서비스
 5. 직업체험센터구성을 위한 파트너쉽
 - 진로네트워크 구성
 - 지역 내 ‘진로서비스체계’를 위한 체계망 구축
지자체, 학교, 진로관련 지역기관, 산업체, 지역 고용안정센터, 사회투자재단, 사회적 기업 등과 교육커리큘럼개발, 현장 배움터

로서의 역할, 지원망 설계, 이미 조성된 공적자본의 효과적 활용에 대한 효과적 가능성을 협력하는 파트너십 구성

공릉청소년 문화정보센터 운영방향 제안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가정복지과					

□ 선정이유

- 문화의 집의 기능과 정보도서관이 공존할 경우 문화의 집이 활성화 되기 어려움.
- 주변학교에서 밤12까지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어 독서실기능은 필요하지 않음.
- 체력단련실, 영어카페, 세미나실 등으로 구성되어 있어 청소년 문화 예술지원 및 활성화에 합당하지 않음.

□ 제안내용

- 청소년 문화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되도록 해야 함.
(동아리 활동, 진로연계 문화활동 등)
- 청소년 문화 활동의 중심기능을 할 수 있도록 주변의 학교와 문화활동 기관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 저소득층 아동을 위한 재능 발굴 및 지원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함.
(베네주엘라의 엘시스테마 참고).

국·공립보육시설설치비용의 효율적 활용(노원구립보육시설확대)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가정복지과					

□ 선정이유

- 노원구 관내 지역별 국·공립보육시설 신규설치의 어려움.
- 용지확보의 어려움.
- 용지구입비용의 과도한 비용지출로 인한 비용대비 효율성 저하
- 시설신축 후 일정한(인가정원) 영유아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비형평성
- 시설신축 후 유지비용의 예산확보의 어려움.
- 현재 노원구 보육시설의 설치정원은 보육아동수요의 약 122%에 달하고 있음.
- 이로 인한 민간, 가정보육시설의 정원확보의 어려움으로 인한 보육운영이 열악
- 과도한 인원확보 경쟁으로 인한 비정상적 보육운영으로 민원제기 요소
- 현행 오세훈 서울시장의 홍보 치적용 ‘서울형 어린이집’의 부모만족도와 시설장 만족도가 기대에 못 미치는 것을 생각할 때임.
- 민간보육시설을 매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 제안내용

- 1개 시설을 설치 운영하는 총비용을 노원구 관내 민간, 가정보육시설을 일정기간 구립화 하는 방안
- 일정기간 구립화를 원하는 시설과 MOU 체결
- 협약이 이뤄진 시설과는 구립보육시설을 신축하는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여 시설을 개보수하는 비용으로 지급하고 구립과 동등한 운영 지원함.
- 1개 국·공립시설의 신축비용으로 다수의 민간, 가정보육시설이 구립화 되어 비용대비 효율성은 크게 향상됨.

- 국·공립보육시설에 수요자가 몰리는 상황을 감안하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한다.
- 시행이 되면 체결보육시설을 24시어린이집, 시간연장어린이집, 시간제 어린이집 등으로 지정하여 보육수요자인 학부모의 호응도가 높아질 것.
- 국·공립보육시설에 지원하는 총보육비용이 동일하게 지원되는 것이 필요함.

노원구보육정보센터 이전과 영유아플라자 권역별 확충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년차별)
과(원)	가정복지과					

□ 선정이유

- 월계·공릉 지역에서 원거리로 대중교통 이용 또한 불편.
- 교육참여 교사들이 보육정보센터까지 이동하는 거리가 멀어 일과운영 중 이동하게 되므로 통합보육시간이 길어져 보육의 질 저하가 우려됨.
-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의 주차공간 부족함으로 단체진행이 어려움.
- 현재 영유아플라자에서 시간제 보육이 공간부족으로 미운영
- 현, 노원구영유아플라자는 상계3·4동 공공복합청사 4층 1곳 지정됨.
- 체험놀이 및 육아카페, 유아품앗이 등 자녀양육 정보의 장에 대한 욕구가 많음에 비해 제공의 장 부족.
- 자녀와 동반한 이동의 어려움으로 프로그램 참여욕구 미충족

□ 제안내용

- 보육시설 종사자와 학부모에게 필요한 교육과 소그룹 워크숍 등이 매월 수시로 진행되므로 보육시설과 학부모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리에 보육정보센터가 설치되어 질 높은 보육프로그램 운영을 마무리 하고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상계5동 어린이집 설치예정 장소에 보육정보센터를 이전하여 1~2층에는 어린이집과 시간제보육시설 운영, 3~4층에는 보육정보센터(사무실, 교육실, 장난감도서관) 등을 설치하여 운영
- 현재 보육정보센터 공간은 영유아플라자 기능을 지속적으로 운영
- 노원구를 4권역으로 나누어 권역별 1개소씩 운영

번호	지역	기능	지역	필요공간
1	공릉, 하계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수유실, 책놀이터, 체험공간, 육아카페	공릉청소년센터	시설면적 50~80평
2	월계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수유실, 책놀이터, 체험공간, 육아카페	월계복지케어센터	
3	중계, 상계	장난감도서관, 자유놀이실, 수유실, 책놀이터, 체험공간, 육아카페	상계3·4동 주민자치센터	
4	상계	자유놀이실, 책놀이터, 체험공간, 육아카페, 수유실	상계5동 - 보육 정보센터이관시설	

- 4개 권역 운영으로 인한 노원구 전체 고른 서비스 제공 가능
- 시설에는 장난감도서관, 육아카페, 체험놀이실, 책놀이터, 자유놀이실 및 품앗이방 사업과 더불어 진행가능
- 육아품앗이방 사업과 관련하여 설치비와 운영비 일부지원 가능
설치비 : 1개소 50백만원 지원(시비50%, 구비50%)
운영비 : 1개소 월 2백만원 지원(인건비 및 운영비)

여성교실 운영개선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교육진흥과					

□ 선정이유

- 여성교실과 여성발전센터의 강좌 내용의 차별성이 모호함.
- 여성은 가사, 육아, 취업 등과 관련한 내용에만 관심이 있을 것이라는 편견이 존재함.
- 단지 여성교실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방안 마련을 넘어서서 노원의 여성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함.
- 여성정책개발과 여성의 사회적 능력향상을 위해 마련된 여성발전기금이 제대로 집행되고 있지 못함.

□ 제안내용

- 성인지적 관점에서 노원구 제반 정책과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필요
- 전문가에게 연구용역을 줄 수도 있음.
- 여성문제에 천착하여 활동하고 있는 지역시민단체와 연계하여 바람직한 여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 여성의 욕구조사를 통해 여성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분석하고 이제껏 관에서 제공되어 왔던 여성프로그램을 평가
- 주민자치위원회, 자원봉사센터, 사회적 기업 등 여성의 능력을 필요로 하는 곳과 연계하여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

녹색분야 노원구 환경교육 센터 건립 및 운영으로 환경교육 거점 마련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장기
과(원)	산업환경과					

□ 선정이유

- 노원은 비교적 교육수요나 열망이 높은 편이나 자연에 대한 감수성과 공생의 원리를 체감할 수 있는 환경교육이 부족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균형 있는 전인 교육이 부족한 실정임.
- 파편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환경교육 프로그램을 환경교육 센터를 거점으로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효과성을 높이도록 함.
- 환경교육센터 건립 및 운영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지속가능한 노원만들기의 초석을 만듦.
- 환경교육센터를 거점으로 민간 환경단체원 및 관심주민이 정보를 얻고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 할 수 있는 공간 마련

□ 제안내용

- 노원의 환경교육센터 설립의 필요성과 운영방안에 대해 용역을 발주
 - 노원에서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는 환경교육 관련 정규교육과 사회 교육의 실태 조사 실시
 - 환경교육 관련 지역자원 조사를 실시
 - 환경교육센터 건립과 프로그램 개발
 - 환경교육 운영주체 육성방안 제시
- 관련자 워크숍을 통해 의견 수렴

노원의제21 사무국 설치로 노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대안 마련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산업환경과					

□ 선정이유

- 노원구 환경기본조례에 근거,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가 활동하고 있으나 선언적 의미의 활동, 구청장 자문의 활동에 그치고 있음.
-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의 구성 : 구청장이 위촉하는 지역사회 구성원 20인 이내로, 효율적인 업무를 위하여 산업환경과장을 간사로 둘 수 있음.
 -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의 활동
 - 정책분과위원회 : 노원의제21총괄추진, 환경보전과 개발에 대한 정책 대안 제시
 - 홍보분과위원회 : 구민환경교육, 환경홍보·감시와 관련된 사항
 - 노원의제21실천위원회 예산 : 회의에 참석한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함. 공청회·세미나 개최 및 조사·연구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
 - 의제의 취지인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구체적 실천강령’으로서의 역할을 위해 민·관 거버넌스의 형태로 주민이 참여 하는 지속가능한 대안을 만들고 노원구 환경정책의 자문, 실천단의 역할을 하기에 조직, 예산의 한계가 있음.

□ 제안내용

- 노원의제21 설치 안
 - 조직 : 공동의장단/상임의장/고문/감사/운영위원장/정책위원회/사무국
 - 분과 : 사회와복지분과위원회/교육분과위원회/경제분과위원회/생태와 환경분과위원회/자원과에너지분과위원회/문화분과위원회(이상 전주의제 조직도)
- ※ 노원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및 현재 구성된 의제 활동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활동 : 정책위원회 - 각 위원회별 의제 선정, 정책 제안 등
 - 사무국 : 의제 실천을 위한 부처별 협의, 시민실천단 양성·운영, 지속가능지표 TF 구성 및 과업 수행 등
 - 각 위원회 : 다양한 지역 자원으로 분과 구성(시민단체, 학교, 사회복지시설, 대학, 관공서, 담당공무원 등), 활동
- 예산 : 노원의제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정
예시) 그린순천21추진협의회 설치, 운영조례 시행규칙(별첨)
- 구성 : 민관 거버넌스 구조로 운영
 - 민(학) : 환경, 사회복지등 시민단체/대학/사회복지 시설/보육시설/협동조합/지역언론
 - 관 : 기초단체장/기초의원/담당부서공무원/관공서(경찰서, 소방서 등)

생태하천 협의회 구성으로 유역통합관리 및 바람직한 하천 생태 복원 대안 마련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산업환경과					

□ 선정이유

- 노원의 경우 중랑천, 당현천, 우이천 등 지방하천과 국가하천이 흐르고 있으며 친환경 하천 복원의 내용으로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하천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있음.
- 노원구 하천 정비사업은 친환경 하천정비 사업으로 보기에 한계가 있으며 각 부처별 소통과 합의의 과정이 어렵고 주민과 함께 하천복원의 비전을 그리고 있지 못함.
 - 우이천, 당현천 등의 지방하천은 지역 주민의 민원해결을 중심으로 하는 친수공간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에 가까움.
 - 공원녹지과, 산업환경과, 치수방재과, 토목과에서 진행되는 하천 관련 부서 소통을 위한 조직 체계 마련이 시급함.

- 중랑천은 국가하천이므로 중랑천 유역의 지자체간의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나, 과거 동북부행정협의회에서의 선언적 활동 외에 유역 통합관리에 대한 활동 전무함.

□ 제안내용

○ 유역 통합관리를 위한 생태하천 협의회 구성안

○ 노원구 생태하천 협의회

- 조직 구성 : 민 - 시민단체, 주민대표/관 - 관계부서/학 - 대학 협의회 (별도 사무국설치 여부는 의제21과의 업무 고려)
- 활동, 역할 : 민·관·학 파트너십에 의한 살아 숨 쉬는 하천살리기 사업 추진에 관한 활동
 - 주민참여를 통한 하천 살리기 운동 전개
 - 하천별 시민모임 조직의 활성화를 통한 하천네트워크 구축
 - 하천살리기 운동을 통한 하천의 역사·문화·생태 복원
 - 하천살리기와 관련한 주요정책의 조사, 연구, 협의 및 발전적 대안 제시

○ 동북부 생태하천 협의회

- 조직 구성 : 각 지자체별 생태하천 협의회와의 통합기구로 설치
- 활동, 역할 : 국가하천(중랑천) 생태 복원을 위한 유역 통합관리에 관한 활동
 - 하천 복원, 보호 등 통합관리를 위한 공동 조례 제정
 - 국가하천(중랑천)의 중장기 비전 마련
 - 주요 이슈에 대한 공동 대응(예 - 중랑천 뱃길 조성 등)

※ 참고 사례 : 인천 '하천살리기추진단' / 부산 '하천살리기 시민운동본부' / 전주 '생태하천 협의회'

노원구 둘레길 조성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공원녹지과					

□ 선정이유

- 현재의 불암산 둘레길 조성 계획안에 의견 첨부
- 노원의 역사·문화·생태 가치를 지켜내고 보호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여 조성할 필요 있음.

□ 제안내용

- 하드웨어적 접근보다 소프트웨어 마련 관건
 - 관련전문가를 찾아내어 사람중심으로 문제 해결 필요
 - 일자리 사업(사회적 기업)과의 연결 고려
 - 노원구 내 걷고 싶은 길 찾기 위한 민간 참여 고려(공모제 등)
 - 시설설치 위주의 길 사업보다는 지역의 문화, 자원, 역사를 발굴하고 보호할 수 있는 사업 방안 마련
 - 환경정책 준비위(가)에서 구체적 사업 진행 방향 검토
- 현재의 여건(숲, 하천 등)을 잘 활용하여 환경교육 및 사색의 장으로 진행 가능
 - 불암산 둘레길 사업을 중랑천까지 연결하여 둘레길 사업으로 확장
 - 노원의 과거의 모습을 재현(갈대, 억새)하고 노원의 역사적 가치(태릉)를 살리고, 다양한 주제(나눔, 평화, 생명 등)를 선정하여 구간별 테마길로 진행

하천복원 사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건설교통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치수방재과					

□ 선정이유

- 중랑천 뱃길 조성사업 재검토 제안
- 생태하천복원 사업은 이치수에 환경, 생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한 사업이며, 이를 치수방재과에서 담당하기에는 적절치 않음.

□ 제안내용

○ 중랑천 뱃길 조성 전면적 재검토 제안

- 4대강 논란 재현 사업으로 환경, 기술적 문제점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뱃길 수심 확보를 위한 보설치 문제
 - 물 흐름의 정체로 인한 수질 악화, 생태 이동 차단
 - 중랑천은 4대강과 달리 급경사이므로 보설치 이후 토사의 과다퇴적에 따른 준설의 유지관리 문제점 발생
- 하상 굴착, 하도 준설 문제
 - 중랑천은 하상 2m만 굴착해도 암반이 노출되며, 폭파에 따른 소음, 진동으로 민원 발생
 - 어류 등 생태 훼손. 대규모 하상굴착에 따른 토사 적치장을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 발생
 - 토사를 중랑천 변에 쌓아둘 경우 강우시 수질오염 발생

○ 화랑로 실개천 조성사업 검토 제안

- 7월에 발주 예정인 사업 시기를 우기를 고려하여 발주하는 조정 필요
- 생태연못이나 초화원 조성공사시 식생을 고려하는 공사기간 연장이나 사업 발주 시기 조정 필요
- 좁은 하천에 물 흐름을 방해하는 전망데크 설치 재검토 제안

○ 치수방재과의 과명 변경 : 최근 하천공사는 환경과 생태를 중요시하는 경향이므로 수질 및 생태 담당까지 포함한 물환경관리과(또는 물관리과) 등으로의 직제 개편이 요구됨. 서울시에서도 물관리과가 있음.

○ 지속가능한 하천복원 대안 마련 : 하천변 도로 투수 능력 설치, 빗물 조례를 통한 빗물이용 방안 마련 등 하천용수확보를 위한 과다한 개발 공사 위주의 정책보다 지속가능한 정책, 시스템 마련 필요

복지분야 공동주택 지원센터(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추진본부) 설립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주택과					

□ 선정이유

- 공동주택 비율이 86% 내외로 차별화된 지원정책이 필요
- 공동주택 관리자에 민원발생과 공공서비스 지원 요구 증가
- 공동주택 관리업무는 주택관리팀 3명으로 인적 자원이 부족한 상황임.
-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운영되는 사유시설에 대한 관의 개입에 소극적 상황임.

□ 제안내용

- 공공주택관련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각 부서의 긴밀한 협업 제안
- 찾아가는 민원해결 서비스로의 업무행태 변화 필요
- 단순 민원분쟁의 조정 역할만이 아닌 주민공동체 육성,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및 관리업체 교육 지원을 할 수 있는 지원서비스 제공
- 공동주택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의 전환 경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맞는 관리업무 지원서비스 준비 필요
- 공공서비스의 적극적 지원을 위해 민원 호민관을 고용하여 관이 접근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한 관리가 필요
- 적극적 대민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민·관협동 상설기구 설치 제안
-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관련된 유사업무를 통합하여 공공서비스 제공 제안
- 공동주택 지원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한 담당부서(주택과, 도시개발과) 적정 재배치도 가능할 것임.

※ 실행방안

- 공동주택 지원센터(살기 좋은 공동체 만들기 추진본부) 설립 준비위원회 구성
- 우리구 실정에 맞는 공동주택 지원서비스 운영 안 확립
- 민·관 특성에 맞는 업무분담과 공동운영 추진본부 설립, 자문위원회 구성
- 지역 내 공동주택과 유기적 관계를 형성하고 업무, 공사 등 자료취합 후 표준화
- 관리업무 각 사안에 대한 표준안 제공 및 모니터링
- 우리구 공동주택 실정에 맞는 공동체 프로그램 개발
- 관리자 및 입주자대표회의에 공동체 프로그램 제공 및 지원
- 주민자치관리에 대한 프로그램 개발
- 기타 세부 운영 프로그램 등 개발

무상 영유아 건강검진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년차별)
과(원)	가정복지과					

□ 선정이유

- 건강보험공관에서 실시하는 영유아 무상건강검진의 복잡함.
- 현행 영유아 무상검진제도 시행중(개월별로 무상검진이 구분되어 있어 매년 누락이 되는 아동이 발생).
- 보육시설에 재원중인 영유아의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검진을 위해 휴가를 내어 병원에서 아동의 건강검진 실시하기 불편함.
- 기존 보육시설에서 단체검진을 실시하였으나 개별검진으로 전환하여 다수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

□ 제안내용

- 현행 영유아 무상검진 대상 외의 영유아에게 노원구 자체예산으로 1년에 한번 무상검진을 실시하도록 지원함.
- 보육시설과 결연을 맺은 지역 병원에서 무상검진 대상 외 영유아에게 구청예산으로 검진 할 수 있도록 함.
- 1인당 1만여원의 예산이 반영되면 취학전 노원구 영유아에게 전체 무상 영유아검진을 실시하게 됨.
- 노원구 영유아의 부모에게 작은 부담을 경감시키지만 체감효과는 크게 작용 할 것으로 판단되어 지속 관심 사업으로 판단함.

구청장 직속 ‘장애인 정책담당관’ 제도 신설 및 모니터링 센터 설립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사회복지과					

□ 선정이유

- 장애인 복지가 비효율적이고 체계적이지 못한 근본적 원인으로는 장애인 복지를 최종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는 관제탑이 부재하기 때문임.
- 장애인 정책 입안, 실행, 집행, 평가에 이르기 까지 장애인 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새로운 형태의 ‘장애인 정책 담당관’ 제도가 필요함.
- ‘장애인 정책 담당관’ 제도를 통해 장애인의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한 다양한 조례재정과 시설 마련으로 장애인 복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 사업 접근이 필요함.

□ 제안내용

- 장애인 정책 담당관 제도 하에 장애인 복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장애인 당사자 참여형 모니터가 반드시 필요

- 전문 인력 양성
- 관리 운영을 위한 재정적 지원
- 장애인 당사자가 주도하는 모니터링 센터 설립
 -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위탁하여 장애인 관련 모든 정책과 인권, 프로그램 등을 평가 하고 모니터 해야 함.
 - 장애인 전용 주차 구역 등의 단속권을 장애인 당사자 단체에 위탁
- 장애인 정책 담당관 제도 도입 후 구체적으로 실현해야 할 사업
 - 장애인 고용촉진 조례 재정
 - 공공부문의 의무고용/고용촉진 시책/공공부문 일자리 창출(영암군 조례 참고)
 - 장애인 차별금지 조례 재정
 - 지역 장애인의 실질적 차별금지를 제도화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참여 의지를 높이는데 크게 기여(전라남도 조례 참고)
 -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조례 재정
 - 활동보조, 편의시설 및 주택개조, 이동권, 문화권 등 장애 전 영역에 걸쳐 지원 할 수 있는 내용으로 재정하여 장애인의 부양 의무를 지역에서 함께 고민하는 계기 마련
 - 장애인 편의시설 건립 등
 - 장애인 스포츠팀 창단, 장애인 전용 목욕탕, 장애인 통증클리닉, 전동 휠체어 배터리 충전소 공공장소 설치 등 장애인의 생활편의와 재활을 위한 시설 확충

지역 내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지원센터 설치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사회복지과					

□ 선정이유

- 노원구 지역에는 서울시 영구임대아파트의 25%가 밀집해 있음.

- 임대아파트 및 재개발 지역의 주거취약계층의 월세 및 임대료 체납에 의한 퇴거 위기 가정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임.
- 각종 주거복지정책이 시행되고 있으나 주민밀착형으로 홍보되어 진행되고 있지 않음.

□ 제안내용

- 재개발 관련 민원상담과는 다르게 퇴거위기가구에 있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전달상담체계**가 필요함.
- 또한 일정금액의 기금을 마련하여 퇴거위기가구에 대한 일시적인 무이자 대출기금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지속적 사례관리로 위기를 스스로 넘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주거복지상담센터**를 설치해야 함.
- 외부자원을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는 민간영역에 위탁하는 방식이 필요함.

‘자원봉사센터’ 부활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직제개편)	단기, 중기
과(원)	주민생활지원과					

□ 선정이유

- 노원구 등록자원봉사자수는 25개 자치구 중 6번째, 활동자원봉사자수는 4번째로 많으나 우리구만 자원봉사팀을 해체하여 서비스연계팀에 흡수
- 자원봉사자관리의 업무중요성이 점증하는 가운데 관리부서와 인원의 폐지, 축소로 자원봉사업무수행에 어려움이 있음.
- 2010년 6월 20일 현재 등록자원봉사자수 53,086명
- 우리구를 제외한 24개구가 자원봉사센터가 있으며 구직영 14곳, 위탁 7곳, 센터장을 민간인사로 위촉하는 혼용이 4곳이 있음.

□ 제안내용

- 자원봉사센터의 조속한 복원으로 노원구 사회복지서비스 및 주민참여 활성화가 필요함.
- 업무의 조속한 진행을 위해 구청 자체조직으로 부활한 뒤 6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을 거쳐 민간에게 위탁하여 내실 있는 운영이 필요함.

‘지역사회복지협의체’ 활성화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중기
과(원)	주민생활지원과					

□ 선정이유

- 사회복지사업법 7조 2에 근거하여 20인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을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모델을 기획하고 민·관협력체제 구축을 통해 효율적인 복지시책을 수행코자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청담당부서 공무원과 복지관장을 중심으로 한 관주도 인사구성과 일년에 한 두 차례 회의 소집으로 실제 역할이 없는 유명무실한 상태임.
- 현재 19명의 대표협의체위원은 임기 2년으로 작년 말 위촉되어 잔여 임기가 1년 6개월 남았음.

□ 제안내용

- 지역사회복지협의체 본래기능을 회복하고 실천력이 담보된 명실상부한 조직이 되기 위해서는 민간주도의 적극적 참여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 협의체 위원은 적극적 참가의지가 있는 사람으로 보강, 교체, 재위촉이 절실함.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의 기능강화방안

- 지역사회복지계획수립 및 평가역할 부여
-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서 논의된 결정사항에 대한 정책반영 의무화
- 민간간사 채용 또는 전담공무원 배치로 상설운영체제 마련
- 부천시의 민간자원을 동원한 자체사업실시사례 준용

洞 ‘주민생활지원팀’ 인력배치 기준안 및 업무분장 표준안 마련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과					

□ 선정이유

- 사회복지 최일선 현장인 동주민센터(주민생활지원팀)의 업무 과중 및 인력 부족 현상으로 인해 적절한 서비스 제공 어려움 초래
- 2007년 1차, 2010년 2차 조직개편에 따라 사회복지직의 구청 전출이 증가하였으며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보편적 복지업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으나 주민생활지원팀의 인력 보충은 미미하고 사회복지직 외 직렬의 복지업무 수행 기피 또는 두려움으로 인해 여전히 사회복지직의 업무 할당량이 상대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실정임.
- 구청 사업부서는 충분한 인력 확보가 되지 않아 조직개편에 따른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일부 업무는 다시 동주민센터로 이관 되고 동에서는 사회복지직은 감소되었으나 이관 업무의 일부는 잔존하는 등 구·동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되는 비효율적인 구조가 되었음.

□ 제안내용

-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 주민생활지원팀의 인력 배치 기준안 및 업무분장 표준안을 방침(구청장방침)으로 확정하여 시행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인력배치 기준안 : 사회복지직 부족 인원만큼 행정직으로 배치
 - 직렬 구성 : 사회복지직, 행정직(필수), 기능직으로 배치
 - 인원 구성 : 동별 복지대상자(수급자 및 보편적복지대상자) 수에 비례하여 표준 인원 산출

※ 사회복지직 배치 기준안 별도 마련 요

- 구·동 전체 사회복지 인력 배치 분석 및 기준안 마련
- 구청 사회복지직 부족인원 보충 방안 마련
-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직 감소 인원만큼 행정직으로 보충 방안 마련

- 업무분장 표준안(영구임대 및 일반 지역 구분)
 - 사회복지직(전문 복지분야)
 - : 국민기초수급자, 한부모가정, 결식아동, 차상위장애/의료/자활 등 복지대상자 관리, 자활사업, 의료급여, 사례관리, 서비스연계(이웃돕기, 자원봉사 등)
 - 행정직/기능직(비전문적 보편적 복지분야)
 - : 기초노령연금, 보육료 지원, 장애인복지사업 전반(장애인연금 포함), 공공근로, 희망근로, 주거복지, 청소(종량제봉투 포함), 생업자금, 긴급지원, 생활안정자금지원, 희망플러스/꿈나래통장, 정부양곡 지원사업 등

○ 위와 같이 동 주민생활지원팀의 인력배치 기준안 및 업무분장 표준안 마련은 보편적 복지업무 증가 및 확대에 의해 이제 더 이상 복지업무는 사회복지직만의 업무가 아니라 업무의 성격에 따라 사회복지직, 행정직 누구나 담당할 수 있다는 인식을 확고히 하고 사회복지직이 필요한 만큼 충원되지 않는 현실에서 차선책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구청장 방침을 통해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업무 효율성 강화를 위한 지원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앙부처 건의)	중·단기
과(원)	총무과					

□ 선정이유

- 타 직렬에 비해 소수 직렬인 사회복지직의 직급별 정원 불균형 해소
- 2000년 이후 확대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에 비해 현재 전문 인력인 사회복지직의 숫자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으로 이는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의 질 저하를 초래하고 있음.
- 사회복지직의 현원이 106명이나 이중 약 20% 정도가 출산휴가(육아 휴직) 중으로 자연발생적 감소인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함(대체인력 및 비정규직 인력 보충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님).
-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의 사회복지 역할 강화를 위해 6급 팀장 보직을 행정직·사회복지직 누구나 가능한 복수직으로의 전환 필요 (19개동 전체 복수직 전환)

□ 제안내용

- 노원구인사운용규칙(조례) 개정
 - 사회복지직 5급 정원 신설(1~2명)
 - 사회복지직 정원(現 100명) 확대 : 업무량 현실에 맞게 확대 조정 필요
 - 직급별 정원 조정, 동주민센터 주민생활지원팀 복수직 전환
 - 사회복지직 6급 정원이 9%로 타 직렬에 비해 현저히 낮은 비율이므로 연차적 목표 인원을 설정하고 구체적인 조정방안을 마련하여 타 직렬과 동일한 비율로 맞추어야 함(7~9급 정원 역시 이와 비례하여 조정 要).
- 자연발생적 결원과 업무량에 비해 현저히 부족한 전담 인력 확보를 위해 신규 인력 충원시 사회복지직을 우선 선발할 것.
- 정원조정 문제는 노원구의회를 통한 조례제정 개정을 통해 실현하고 인력

충원 문제는 1차적으로 자체 신규 인력 보충 필요시 사회복지직을 우선 충원하고 2차적으로 중앙부처(보건복지가족부) 건의 등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보육교사처우개선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년차별)
과(원)	가정복지과					

□ 선정이유

- 보육교사의 처우가 매우 열악함.
- 열악한 임금구조에 대응하기 위해 노원구자체예산으로 복리후생비를 매월 6만원을 지급
- 인접구(강북, 도봉 - 현재 8만원 지급)와의 복리후생비 격차는 보육교사들의 불만요인으로 작용
- 보육교사의 사기저하로 보육교사 신규 채용시 애로사항으로 작용

□ 제안내용

- 보육교사의 자긍심을 향상시키는 상향된 복리후생비지원제도 정착
- 우수한 보육교사를 통한 노원구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킴.
- 보육교사 신규채용과 재임용시 양질의 교사를 확보할 수 있음.
- 안심보육의 최우선과제는 안정적인 처우를 통한 우수한 보육교사 확보
- 현 노원구 보육유형별 교사현황

계	민간	가정	직장	국공립			비고
				소계	일반	방과후	
1,636	496	840	20	280	260	20	

경제분야 지역순환경제시스템 구축을 위한 지역자원조사와 혁신사업의 발굴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예산마련	위탁조사 및 기획	위원회 구성	기타	단기
과(원)	산업환경과					

□ 선정이유

- 노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산업기반이 약하며, 기존의 산업진흥정책으로는 경쟁력과 차별성을 갖기가 어려운 실정이므로 새로운 커뮤니티 비즈니스 방식의 접근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지역자원조사의 실시가 우선적으로 요구됨.
- 기존의 종합발전계획과는 다른 지역자원을 활용한 주민주도의 비즈니스 모델의 도입이 필요하며, 기존의 산업정책과 병행했을 때 시너지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단위에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비즈니스모델이기 때문에 생활자적 관점에서 접근할 수 있으며, 개성 있는 노원만들기가 가능함.
- 중앙정부 차원에서 사회적기업, 커뮤니티비즈니스 등 다양한 형태로 추진되고 있으며, 이를 능동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추는 것이 필요함.
- 지역자원조사를 바탕으로 노원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사회혁신사업을 기획하고 이를 실현하여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여나감.

□ 제안내용

- 지역자원조사를 위한 위탁사업을 실시하고, 위탁기관을 중심으로 지역 내의 다양한 기관도 참여하여 지역 내에 잠재되어 있는 자원을 발굴
- 조사된 지역자원을 어메니티분석법이나 매트릭스분석법에 의해 지역자원을 활용한 지역사업의 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혁신적 관점과 community solution의 관점에서 사업구상

- 자원조사결과와 사업구상내용을 주민들과 공유할 수 있도록 소단위로 순회하면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
- 지역경제순환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체를 공모하여 경영지원을 실시하여 조속히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지원조례의 필요성 검토요망)
- 행안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희망근로사업의 생산적 사업이나 지식경제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즈니스 시범사업(건국대에 사업단이 만들어짐)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많은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또한 최근 기업들의 사회공헌 방식이 ISO26000의 논의가 활발해짐과 더불어 ‘지역사회투자형 사회공헌활동’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앞으로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면서 추진한다면 더욱 큰 시너지효과를 기대할 수 있음.
- 매년 10개 이상의 지역경제순환사업을 보육·육성하여 지역산업으로 정착시키도록 하며, 이를 통해 매년 100명 이상의 일자리를 만들어 냄.
- 중장기적으로는 가칭 ‘지역경제순환지원센터’를 만들어 지속적으로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시민기업을 만들어 가도록 함.
- 전라북도 완주군에서는 희망제작소의 협력을 얻어 2008년부터 지역 자원조사를 위한 ‘선택리지사업’을 실시하였으며, 여기서 조사된 내용을 바탕으로 새로운 관점의 지역사업을 70여개 제안하였음. 제안된 사업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태세로 공모사업을 추진하였으며, 현재 시범사업의 형태로 매년 5개의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현재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완주군 커뮤니티비즈니스지원센터’를 건립하여 추진하고 있음. 추진하는 과정에 조사·기획된 내용을 가지고 정부 정책사업에 공모하여 약16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였음.

공공서비스(사회적) 일자리 창출 및 운영을 위한 기구 설치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희망일자리추진반					

□ 선정이유

○ 공공서비스 영역의 업그레이드 필요

- 경제위기와 고용불안의 지속은 공공서비스 영역의 위기를 가져오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공공서비스 영역은 경제발전 속도에 비해 더디게 성장해온 측면이 있음.
-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의 진입과 저출산으로 인한 양육 및 보육서비스의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상황임. 더불어 환경과 문화 등 사회경제적 수준의 향상에 따른 수요의 확산에 대한 대책도 필요함.

○ 공공서비스 업그레이드와 연계한 일자리 정책

- 현재 한국사회에서 일자리를 다량으로 창출할 수 있는 영역은 공공서비스 영역임.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의 그동안의 공공서비스 제공은 공공부문이 보편적인 사회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의무를 저버린 채 무분별하게 민간에 넘김으로 해서 공공성의 후퇴를 가져오고 있음.
-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함.

□ 제안내용

- 공공서비스(복지, 의료, 교육, 환경, 문화) 분야의 일자리를 직접 창출하고 직접고용으로 운영하는 것을 우선원칙으로 함.
- 희망근로 프로젝트, 공공근로의 흡수 : 기존의 희망근로 프로젝트와 공공근로는 사회적으로 필요한 공적 서비스 영역임에도 불구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일시적 지원 형태로 운영되어 저소득층의 자활의 의지를 형성하지 못하는 것은 물론 이 밖에 사회적 기업과 현재 민간에서 시행

하고 있는 공공서비스 분야의 기관에 공공서비스 분야의 인원을 노원구가 설립한 사회적 일자리 센터를 통해 공급.

- 사회서비스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최초 교육기회는 물론 재교육 기회를 포함한 규모 있고 체계적인 교육체계를 수립하고 제공하여 지속적인 사회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 실행방안

- 1단계 : 노원구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과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 시행
- 2단계 : 노원구에서 사회서비스 일자리를 운영하는 기구의 설치
예상모델 '노원 사회적 일자리 종합 센터'
- 3단계 : 본격운영

노원구 취업알선센터를 취업개발지원센터로 확대개편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희망일자리추진반					

□ 선정이유

- 경제 침체 속에서 취업 준비에 구직자들이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음.
특히, 자기 적성과 능력에 맞는 취업 컨설팅과 준비가 필요한 상황임.
- 또한 자치구에 존재하는 기업체는 대기업을 제외하고 중소기업들은 지역 주민들의 고용이 높은 비율을 차지함. 그리하여 고용의 안정성을 지원하기 위해 지역업체 업종별로 특성에 맞는 직원 재교육훈련이 필요함.
- 자치구 차원으로 취업알선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구인구직 연결정도에 그침. 또한 인력도 부족한 상황임.

□ 제안내용

- 취업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지역주민 구직자들에게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여 취업준비를 지원
- 지역 내 업체들의 특성에 맞는 직원 재교육, 훈련을 자치구 차원으로 실시하여 지역 고용창출과 고용안정성을 높임.

※ 실행방안

- 노원구 취업알선센터를 취업개발지원센터 확대 개편
- 인력 충원, 지원 프로그램 개발, 예산 편성
- 주민 홍보 및 이용자 조직
- 지역 업종별 직원 재교육훈련 신청접수 후 진행

※ 좋은 타구 사례

- 송파구 : 2008~2009년 행복나눔 일자리센터를 별관에 마련해 구인 구직 안내뿐 아니라 직업상담사 5인을 두며 맞춤형교육, 강좌 등 적극적인 취업지원교육 진행
- 동작구 : 구직신청에서 취업까지 'One-Stop' 다양한 취업서비스 제공 앞장. 취업개발센터 3곳 운영. 구직 담당공무원과 전문 직업상담사들이 배치돼 구직신청에서부터 취업까지 책임져주는 One-Stop제 실시와 휴대폰 문자서비스를 통한 신속한 구직 정보 제공

노원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립으로 지역중소기업 육성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산업환경과					

□ 선정이유

- 현재 서울시의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한 기관은 '서울산업통상진흥원' 과 '서울신용보증재단' 이 대표적임. 산업통상진흥원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형 전략산업육성과 창업활성화, 중소기업판로개척의 국내외마케팅, 해외통상 및 해외투자유치를 주요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신용보증재단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이 주된 업무임.

- 이 밖에 중소기업 지원시설로 ‘서울신기술창업센터’, ‘창동 중소기업제품 전시판매장’, ‘서울애니메이션센터’, ‘서울패션디자인센터’, ‘서울인쇄센터’, ‘서울디자인센터’, ‘서울무역전시장’이 있음. 그러나 이들 시설은 특화산업에 대한 지원 시설이거나 단순 전시판매장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 사실임.
- 위에서 알 수 있듯이 현재 서울에는 기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컨설팅을 포함한 마케팅, 기술혁신 및 기술사업화, 기존 인력에 대한 교육지원, 기업의 일반적인 애로사항을 처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기존의 영세한 중소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이 없음.
- 특히 오세훈 서울시장 취임이후 서울시의 산업정책은 관광, 컨벤션, 디자인·패션, 디지털콘텐츠, 금융 등의 오세훈 서울시장의 선정한 6대 신성장 산업동력에 대해서만 지원이 확대되고 기존의 제조업 등의 산업 분야에 대한 지원은 취약해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제안내용

- 중소기업육성과 지원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를 노원구에 선도적으로 설립
- 기존 제조업체의 부품소재 등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전환을 위한 기술 교육 및 자금, 경영컨설팅 지원을 통한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및 고용 안정
-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고부가가치 선도사업을 중심으로 한 창업지원기능 수행
- 단계별 계획
 - 1단계 : 중소기업종합지원 활성화를 위한 연구용역
 - 2단계 : 중소기업종합지원 전담부서 설치
 - 3단계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설치

재래시장 근거리 공동배달 시스템 구축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산업환경과					

□ 선정이유

- 대형마트를 중심으로 하는 대기업 유통회사들이 지역 거점매당을 통한 지역 상권장악과 아울러 인터넷 쇼핑만으로도 집까지 당일 배달하는 등 지역의 중소유통망을 완전장악하려는 시도가 계속되면서 재래시장을 비롯한 지역의 중소유통망은 고사되기 직전에 놓임.
- 재래시장 등 지역 상가는 쇼핑의 불편함과 아울러 주 이용층인 주부들이 대량 물품을 구매하여 집까지 운반하기 어려운 점 때문에 많은 물품을 한꺼번에 구매할 때는 거의 대형마트를 이용하게 됨.

□ 제안내용

- 중소상인과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배달시스템 지자체가 직접 구축
 - 재래시장 및 인근 상가 상인을 회원으로 하는 공동배달 시스템(배달 인력관리 및 인터넷 등 통신망) 구축
- 배달 건당 비용은 상인들이 매출에 따라 공동 분담

※ 타 재래시장 사례

- 사례1. 망우동 우림시장 : 전화 및 인터넷 주문으로 배달서비스 제공
배달료 2,000원(2만원 이상 구매시 무료배송). 그 외 아케이드(지붕) 설치 및 쇼핑카트 비치
- 사례2. 인천서구 중앙시장 : 쇼핑한 물건을 배달해 주는 고객지원 배송 센터 설치. 인천시는 공동배송센터를 이용한 택배서비스를 올해 송현 시장, 현대시장, 토지금고시장, 모래내시장, 부평종합시장 등 5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며 공동배송센터에서는 시장 내 개별 점포의 구매 고객이 맡긴 상품을 배송차량을 이용해 1~2시간 간격으로 배달하며 배송차량 유지비와 인건비 등은 상품을 판매한 점포에서 분담

- 사례3. 경기오산시 중앙시장 : 오산시는 배송 콜센터, 모유수유실, 여성 휴게실 등을 갖춘 중앙시장 고객지원센터 설치(2009. 11)
- 사례4. 하동군 배달서비스 : 고용 인건비로 군비 400만원과 도비 400만원 등 8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2009. 7 ~ 연말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통시장 배달서비스 집중운영/현재 진행여부 미확인
- 사례5. 제주 전통시장 : 쇼핑몰 공동구축(공동배달은 아니며 택배 서비스 이용)

상인과 소비자가 함께 누리는 ‘노원사랑 마일리지’ 도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산업환경과					

□ 선정이유

- 지역중소유통산업을 지키는 것이 지역경제를 살리는 것임을 모두가 공감한다고 해도 대기업매장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낙후한 마케팅과 편의 시설이 없다는 점 때문에 지역의 중소상가들은 고전하고 있음.
- 이에 일부 지역에서는 재래시장을 살리기 위해 지역 상품권을 만들고 다른 지역과 호환성을 높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선매방식의 지역상품권만으로는 주민의 자발적 참여가 떨어지는 것이 사실임. 또한 일부 지자체에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강매하는 등의 부작용이 발생하기도 하고, 널리 확산되고 있지 못함.
- 따라서 일부 상인들의 자발적 노력으로 시도되고 있는 상품구매에 따른 마일리지 제도를 활성화하여 지역상가는 물론이고 지자체에서 제공하는 모든 시설과 사회적 서비스 이용시 사용가능한 ‘노원사랑 마일리지’ 제도를 도입함.

□ 제안내용

○ 상인

- 마일리지 회원점포점에 가입하고 이용하는 상품구매시 마일리지를 제공함.
- 적립된 마일리지를 7:3으로 배분하여 각각 주민과 지역사회에 제공함.
- 지역사회에 제공한 30%는 지역상가 서비스 개선비용이나 기구를 통해 지역사회에 기여함.
- 상인은 마일리지를 제공함으로써 광고효과를 높일 수 있어 매출이 증가함.

○ 지역주민

- 지역상가에서 상품을 구매할 때 제공받은 마일리지를 현금처럼 재사용함으로써 사실상 할인을 받게 됨.
- 지역 봉사활동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마일리지를 적립(재정지원)
- 지역사랑 마일리지를 공공체육시설, 공공주차시설, 재래시장 및 상가 지역 공공놀이방과 탁아소, 시장공동배달시스템 이용, 지자체 산하 문화회관, 주민센터 프로그램 수강, 시립예술단 공연관람, 공공기관 민원서류발급수수료 등 지역서비스를 이용할 때와 사회적 일자리 사업(또는 사회적 기업)으로 추진하는 가사도우미, 산모도우미, 간병서비스, 세차,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음.

○ 노원구

- 마일리지사용이 가능한 환경 구축(별도비용이 들지 않음)
-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해 주민에게 마일리지 부가하고 재정을 투자함.
- 마일리지 사용이 가능한 지역 인프라 구축, 상가밀집지역에 공공탁아소, 공공놀이방 설치, 마일리지 사용가능한 서비스 개발
- 이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상인들이 적립하는 마일리지에 추가적인 마일리를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음.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사회적기업 모델 개발과 확산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희망일자리추진반					

□ 선정이유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와 확산 계획이 없는 상황
- 사회적기업을 사회복지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소외된 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으로 보는 견해와 정부, 기존의 시장을 제외한 새로운 제3경제영역으로 공익성(사회적 가치)을 강조한 경제활동으로 보는 견해 등 사회적기업에 대한 다양한 생각과 전망을 공유할 필요가 있음.
- 기업의 사회책임투자가 강조되는 사회적 상황에서 창의적인 사회적기업 모델을 만들어내고 기업의 사회적기업에 대한 투자제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 ‘사회적기업 학교’를 열어 많은 시민들의 창의성과 잠재력을 끌어낼 필요가 있음.
- 노동부차원의 사회적 기업에 대한 지원을 넘어 지역차원에서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안을 만들어야 함.

※ 실현경로

- ① 사회적기업 지원을 위한 위원회 구성
(사회적기업운영 책임자, 사회투자지원재단, 고용지원센터 일자리 담당, 기업의 사회투자지원부서 담당자 등)
- ② 사회적기업 학교 개설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이해
 - 노원을 비롯한 국내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파악
 - 새롭게 모색되고 있는 사회적기업 조사
- ③ 사회적기업 모델 설계
- ④ 사회적기업 지원조례 제정
- ⑤ 사회적기업 평가 척도 개발
- ⑥ 사회적기업 확산을 위한 방안 모색

청(소)년 고용활성화를 위한 지역대책 수립 필요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희망일자리추진반					

□ 선정이유

- 일반적인 취업희망자들 가운데 청(소)년 취업희망자들을 분리해서 사고할 필요가 있음. 현재 이들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향후 이들이 중장년이 될 경우 현재보다 훨씬 더 심각한 실업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는 위험 요소를 가지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위기 의식에도 불구하고 지역 안에는 이들에 대한 대책이 전무함.

□ 제안내용

- 통합형 청년일자리 지원시스템 구축을 목적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프로그램을 유기적으로 연관시켜야 함. 또한 개인별 맞춤형 고용지원계획을 수립해서 적절한 직업훈련과 체험 등이 배치될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하자센터와 같이 실질적인 욕구에 기반한 직업체험의 장이 있어야 함은 인정이 되나 지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청(소)년들을 위한 다른 활동들과 연계되지 않는다면 현재 하자센터의 부정적 평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할 것임.

재건축 연한 단축 추진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주택과					

□ 선정이유

- 구청장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촉진만이 최우선이 아닐 수 있다는 고민 필요

-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인한 난개발의 우려 증가
-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인한 개발 진행시 미래의 주거 환경에 대한 고민 필요(이후 재건축 연한이 되었을 경우에는 어떤 주거환경 모델이 필요한가?)
- 재건축 연한 단축으로 인한 대상지역에 대한 정책 수립 필요

□ 제안내용

- 재건축 연한 단축시 파급 효과에 대한 연구 검토 후 추진방향 검토 필요
- 서울시 국토해양부 등 타 기관 연대 검토 필요
- 관내 주거 환경 개선이 필요한 지역을 선별적으로 조사 및 분류
- 재건축에 대한 지역 실정에 맞는 주거안정정책 확립 필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사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도시개발과					

□ 선정이유

- 이전 지자체장의 공약인 상계뉴타운 해결 방안이 필요한 상황
- 재개발 재건축 등 사업인가시 개인 재산권 보호를 중시하는 경향임.
- 사업성 부족 등으로 인한 개발 지연에 대한 대책 필요성 증가

□ 제안내용

- 행정책임 인식하고 업무처리 필요함.
-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행정에 대한 주민피해에 대해 행정 책임져야 함(개발사업 진행에 있어 이전 지자체장의 잘못으로 허황된 기대를 주민들에게 갖게 되었다면 이의제기가 있더라도 후임자가 사실을 알리고 행정에 책임지는 자세가 필요).

- 사업 인허가 과정에서 주민조합 동의서 부실에 대한 재검토 필요함.
- 총체적 개발관련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 제안
- 사업성 부족으로 인한 공공지원 확대시에는 우선순위가 필요함.
- 정책 검토시 신중한 접근 필요

※ 개발 정책에 관한 원칙 제안

① 투명화

- 백지동의서 없어야 함(관행적 인가 없어짐으로 분쟁소지 감소).
- 투명화를 위해서 공공관리제도 시행되어야 함(우리 구는 2개 지역 해당 예상).
- 인허가 행정에서 서비스 행정으로 절차, 분담금 등 합리적 정보제공 해야 함.
- 이러한 업무를 위해서 전문직 채용 필요할 것으로 제안함.

② 공공지원

- 사업성 없어 진행 안 되는 지역은 공공지원 확대밖에 답이 없음
- 구청장 로비를 통하여 정부지원 확대를 받아서 해결하는 방안 제안
- 사업성이 낮은 뉴타운 지역에 대해서는 공공지원 확대로 보완하자는 제안
- 상계 뉴타운 등 개발의 득과 실을 주민에게 알려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자는 제안

③ 지역 특성에 맞는 사업 추진

- 아파트 일변도와 용적률 상향만이 대안인가라는 고민 필요
- 휴먼타운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개발 방향 검토 필요

뉴타운 재개발 재건축 관련 기타 안건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도시개발과					

□ 제안내용

- 월계4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 관련(도시개발과)
 - 사업성 여부와 지하철로 인한 소음, 적재장 등 민원 대책 검토 제안
 - 원주민 재정착을 위한 정책 검토 제안
 - 녹천마을 10동 316세대로 개발계획으로 있으며 자연녹지를 용도변경 완화하는 정비계획 변경하여 높이를 13층 정도로 완화할 계획임.
 -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늘어나서 기존세대에 대한 재정착은 모두 수용할 수 있을 정도의 사업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함.
- 중계동 104번지 보존 방안 제안(토목과)
 -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오랜 민원으로 개발이 불가피한 상황임.
 - 문화적 가치를 반영한 보존관련 예산과 사업타당성 등 종합검토 필요함.

공릉지구단위계획 확장 광역계획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건축과					

□ 선정이유

- 공릉지구단위계획안에 대한 종합적 검토 필요
- 고층 주상복합 건물 건립 계획에 따른 건축물 건립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 발생
- 북부지원과 검찰청 일대에 대상기관 이전으로 인한 주변지역 산업 공동화 발생
- 관내 상업 지구는 1.6%로 낮은 비율이며 관내 균형 발전을 위해 상업 부지의 확대 필요성 증가
- 사무실 등 관련시설 부족으로 인한 높은 임대료로 관내 경제활동 부담이 증가

□ 제안내용

- 공동화 발생 우려가 되는 지역의 상가에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 제안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한 주차문제는 완화되었으며 관내 2개 지역 검토 중임)
- 북부지원 부지와 연계하여 644번지 일대 연계하여 종상향 지구단위 변경 계획을 위한 도시개발과의 연구용역 중인 보고서를 바탕으로 계획 수립 필요
- 공릉동 내 북부지원, 검찰청 이전으로 인한 산업공동화 차단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 필요
- 변경된 지구단위계획안 확정을 통하여 경춘선 부지와 연계하는 비즈니스 벨트를 형성할 수 있음.
- 변경된 지구에 패션디자인센터를 유치하거나 산학연계를 통한 사업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 유치 검토 필요

경춘선 폐선부지 활용으로 패션디자인거리 조성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도시디자인과					

□ 선정이유

- 관내 특성을 살리면서 산업과 연관된 일자리 창출 사업의 필요성 증가
- 경춘선 폐선으로 인한 부지 활용에 대한 검토 필요성 증가
- 폐선부지 활용하여 민간 자본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기회 검토
- 단순 공원의 기능 외 플러스알파에 대한 필요성 증가

□ 제안내용

- 폐선부지 활용에 대한 정책수립 필요
- 서울시 사업계획에 구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 반영토록 해야 함.

- 문화소(공릉동 190-37)부지에 일부 디자인센터 유치 가능하지만 벨리형 개발은 어려운 상황 검토 필요
- 토지 사용에 대한 서울시와 긴밀한 협의 필요
- 경춘선 폐선 부지 중 적절한 패션디자인센터 후보지로 성북역, 신공덕역 일대가 타 지역산업과 연계한 개발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검토
 - 성북, 석계 신경제 전략거점 조성 사업 추진 계획 중임.
 - 성북역 역세권 개발 계획에 맞추어 패션관련 산업체 유치 가능함.
 -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운전면허시험장과 연계된 신비즈니스 경제타운인 동북 CBD(Central Business District) 마스터플랜 확정 계획 중임.
- 관내 산학과 연계된 사업공모를 통하여 패션디자인거리 및 패션 산업에 대한 지속적 투자로 일자리 창출 가능

디자인, 문화 거리 조성사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 · 장기
과(원)	도시디자인과					

□ 선정이유

- 기존 가로 디자인 사업의 문제점 인식(기존 도로 포장 및 식재의 무원칙한 교체로 인한 예산 낭비, 가로를 장식물로 치장하여 가로 환경을 조악하게 한 측면)
- 중계동 디자인서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구 증가
- 문화의 거리 조성시 간판 정비 사업으로 인한 자원낭비 우려
- 서울산업대 주변 특화거리 조성에 대해 적절한 사업타당성 검토 필요

□ 제안내용

-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정책 방향 검토 제안

- 디자인거리를 녹색 가로 환경으로 개선하는 사업추진 방향 제안
 - 녹색 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가로 환경 사업추진
 - 보행로 확폭, 전주 지중화 등 보행환경 개선 필요
- 중계동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에 대한 전면적 검토 제안
 - 가로 환경에 대한 구정철학을 반영하여 단순 화단조성과 조형물 설치로 만드는 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 시비 사업이더라도 국민의 세금 사용에 대한 적절성에 대한 고민 필요
- 간판 정비사업 진행시 단기간 성과를 이루는 것보다 순차적인 사업 진행으로 불필요한 자원낭비 예방 제안

※ 서울산업대 주변 비즈니스 특화거리 조성 제안

- 폐선부지에 유치, 조성되는 사업과 연계 검토
- 우리구 내의 5개 종합대학 중에서 대학거리가 있는 곳은 광운대 뿐이며 추가 설치 조성이 가능한 곳은 산업대 일대로 적정
- 60년대 모습의 낙후된 가로 환경 개선 필요
- 신공덕역 부지(약 5,000평)를 거점으로 일자리 창출하는 네트워크 사업과 비즈니스 특화거리를 조성하여 지역 활성화 가능
- 차선 조정, 보행로 확폭, 전주 지중화 등 보행환경 개선 제안

문화분야 문화도시 노원을 위한 문화정책 수립 필요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문화과					

□ 선정이유

- 현재 노원구는 노원문화예술회관, 노원문화원, 노원구민회관과 문화의 거리 조성 등을 통해 다양한 문화인프라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그러나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참여하고 문화를 창조하는 주체로서 활동할 수 있는 문화정책의 부재로 인해 관주도의 사업이라는 한계에 직면해 있음.
- 따라서 주민들이 문화의 수용자인 동시에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적극적 문화정책의 수립과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원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제안내용

- 중장기 문화정책 수립 필요
 - 성남시의 경우 2006년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만들기 기본계획 연구’를 통해 ‘문화예술 창조도시, 성남’을 성남시와 성남지역 문화발전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바 있음.
 - 이를 토대로 5대 문화정책 사업을 수립하고 1단계 3개년(2006~2008), 2단계 5개년(2009~2013), 3단계 7개년(2014~2020)으로 총 3단계에 걸친 단계별 추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음.
- 지역문화발전을 위한 거버넌스 기구 설치
 - 지역문화예술인과 주민 그리고 외부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자문위원회 또는 관련 거버넌스 기구 설치를 통해 지역문화 정책의 발전을 도모
- 지역내 문화동아리 육성으로 주민들 스스로가 만드는 문화(커뮤니티 문화육성)

- 성남시의 사랑방 문화클럽은 주민들의 자발적 문화동아리를 발굴하고 지원육성한 프로그램으로 대표적 모범사례로 거론되고 있음.
- 노원 문화의 거리 내에 아트팩토리 설치 등을 통한 문화예술산업거점 형성
 - 문화예술 창작인들에게 문화의 거리에 아트팩토리를 조성하여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산업의 기반을 구축
- 노원구에 거주하는 새터민, 다문화가정과 함께 진행하는 문화사업 등 사회 통합의 내용 담는 사업 검토 필요

마을단위로 마을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및 사업 공모제도 도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장기
과(원)	문화과					

□ 선정이유

- 현재까지 현직 구청장 중심의 전시 문화행사가 주를 이룸
- 지역공동체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시행사가 아니라 마을단위로 고유의 특색에 맞는 주민참여 마을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해야 하나 이에 대한 어떠한 마인드도 지자체 내에 없었음.

□ 제안내용

- 최소 1년에 노원구 지역내에서 5곳 이상이 마을 특성에 맞는 주민참여형 마을 축제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예산 배정 필요
- 마을 축제는 공모방식을 통하여 마을단위의 선의의 경쟁을 통한 마을 공동체가 형성 될 수 있도록 진행되어야 함.

어린이 도서관 사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문화과					

□ 선정이유

- 동마을 문고 운영현황
 - 자원봉사자 및 공공근로자 중심으로 한 대출납 진행
 - 프로그램 부재

□ 제안내용

- 동마을 문고를 작은 도서관 사업으로 운영
 - 민간위탁형 고려
 - 사서 및 독서활동가 배치
 - 어린이를 위한 도서관 프로그램 지원

주민참여예산제 시행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기획예산과					

□ 선정이유

- 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에 대한 권한을 시민들에게 이양함으로써 집행부의 예산 투명성은 물론,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 욕구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임.
- 널리 알려진 대로, 브라질의 뽀르투알레그레의 참여예산제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사례이며 민주주의로의 이행에서 ‘민주주의의 심화’로 이어지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과제로 제출되었음.

-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 편성 과정 전반에 걸쳐서 시민의 참여를 보장한다는 측면에서 보통의 주민사업제안과는 차별적이며, 일상적인 예산 감시가 가능한 제도임.

□ 제안내용

- 노원구 예산편성에 있어 사업구성 이전 단계에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여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구조 확립
- 노원구 행정에 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자치구 행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주민의 직접참여를 통한 자치행정의 기반을 확대함.
 - 주민참여예산조례 제정
 - 참여예산위원회를 구성하여 시민중심의 제도 마련
 - 노원구 예산편성 일정에 준하여 ‘참여예산 계획’을 수립함.
 - 구청 내 주민참여예산팀 구성
 - 주민들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아카데미와 같은 교육사업 진행
 - 참여예산주민위원회 구성
 - 참여예산위원회에서는 참여예산편성지침을 마련함.
 - 소외지역, 낮은 계층, 소수자의 이익 증진을 우선하도록 함.
 - 비조직 시민들의 의견이 조직시민의 의견보다 우선하도록 함.
- 관련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구 전체 예산중 사업비의 2% 정도를 배정하고 제도의 성숙도에 따라 점차적으로 그 비율을 확대하여 최대 10%까지 확대하는 ‘참여예산제 운영 4개년 계획’을 수립함.

각종 위원회에 시민참여가 가능한 제도 도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기획예산과					

□ 선정이유

- 행정에 주민과 전문가 등 민간의 참여를 통해 의견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된 위원회 제도는 현재 사실상 주민의 참여보다는 지방자치단체장의 입장을 반영하는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음.
- 이에 위원회 도입의 기본취지인 주민의 참여와 관심 그리고 의견반영을 위해 각종 위원회에 주민이 직접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개선이 필요함.

□ 제안내용

- 형식적인 자문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위원회 제도를 정비하여 주민의 직접참여로 시정에 대한 견제와 감시 그리고 주민의 의견이 제대로 반영 되는 구조를 확립함.
- 위원회에 주민의 직접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위원 pool제’ 도입
 - 구의 각종 위원회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주민들을 대상으로 일정한 자격심사를 거쳐 주민위원 모집
 - 주민위원들은 여성, 장애인, 노인, 청소년 등이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모집
 - 작은 단체, 일반 시민들의 참여 확대
 - 위원의 자격, 숫자를 명확히 하고 당연직의 비율을 축소하고 주민위원과 전문가 비중을 늘림.
- 위원회 자체의 운영개선을 위하여 위원회 운영실적 및 위원 참석현황, 예산집행현황, 회의록을 포함한 위원회 운영내용을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
 - 위원회에 심의, 의결 등의 실질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회의 주기의 준수
 - 위원회의 명단, 회의결과, 회의록의 상시공개 의무화 및 로비 규제 강화
 - 소위원회 제도 및 유급 간사를 두고 공청회, 여론조사 등 시민의견수렴 강화
 - 회의 소집, 안건 상정의 권한이 큰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
- 단계별 계획
 - 1단계 : 위원회 제도개선 및 주민참여보장을 위한 연구용역

- 2단계 : 위원회관련 제도개선(조례정비 등) 및 위원선발, 홈페이지 환경 등을 조성
- 3단계 : 단계별 계획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 및 시범사업 평가
- 4단계 : 위원회 제도개선 평가를 통한 업그레이드 지속

주민참여감사위원회 구성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감사담당관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 선정이유

- 현재 지방자치단체 감사는 국회에 의한 감사(국정감사), 감사원에 의한 감사, 중앙행정기관 및 광역자치단체에 의한 감사, 행정감사규정 및 감사규칙에 의한 감사, 지방의회에 의한 감사(행정사무감사) 등으로 분류할 수 있음.
- 이 가운데 ‘행정감사규정 및 감사규칙에 의한 감사’는 1962년 3월 10일 도입된 자체감사로서 현재 대통령령 제15879호의 위임을 받아 각 지자체 별로 실정에 맞는 자체감사규칙을 정해 시행 중에 있음.
- 자체감사는 다른 통제적 성격의 외부 감사와 달리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 운영에 대한 자율적 통제와 자율적 시정을 목적으로 실시되는 제도임. 일상적으로 정책결정의 오류 발생을 예방하고 문제점을 즉각 발견, 시정할 수 있도록 하여 지방행정의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제도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독립적 감사실을 설치하지 못하고 조직 내 한 부서로만 감사기구를 설치하고 있어 제대로 된 감사가 불가능하고 자치단체장 입김에 좌우되는 문제를 나타내고 있음.

□ 제안내용

○ 자체감사제도 개선

- 자체감사 전문인력 확충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공무원 인사 연계)
- 주민 설명회, 시민단체 의견수렴 등 주민 요구 반영
- 감사활동 및 결과, 전년도 이행사항 인터넷 공개

○ 주민참여 감사위원회 구성 조례 제정

- 외부 주민 다수형 투명하고 공정한 감사기구 구성
- 조직 이해관계자 배제, 외부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여 독립성 강화
- 운영이나 시책에 대한 자문이나 제도개선 의견 개진의 제한적 역할 탈피, 실효성 확보

정보공개 100% – 적극적 정보공표제 도입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감사담당관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 선정이유

- 행정정보공개 제도는 행정의 투명성을 도모하고 주민 편의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선전, 홍보 부족으로 주민 인지도가 낮고 정보 공개를 제약하는 제도적 요인으로 인해 주민의 알권리 충족과 행정의 투명성 확보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 정보공개 범위와 대상이 확대되면 주민의 행정 관심도는 높아지고 직접 참여의 통로도 확대된다는 점에서 행정정보공개는 곧 지방자치 활성화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음.
- 1996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정 이후 정보공개 사례는 늘어나고 있지만 정책 결정과정이나 예산 집행과정 등 지방행정의 이해에 핵심적인 사항은 여전히 미흡한 상황임.

- 중요 정책과 정보에 대한 공개가 미흡할 뿐 아니라, 비공개 사유 역시 매우 형식적이며 불투명하여 일반 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는 크게 제약 받고 있음.

□ 제안내용

- 적극적인 정보공표제도 도입
 - 기본 정보를 소극적으로 최소로 공개하지 않고 ‘적극적 정보공표’를 원칙으로 당해연도 업무계획, 판공비내역, 주요정책과 예산관련정보, 보건 및 안전, 환경, 시설 등 관내 기본정보 공개
 - 간담회, 설명회, 공청회, 용역보고서, 평가서 등의 전문자료 및 각종 위원회 회의자료와 회의록 공개
- 사업시행 과정의 투명성 제고
 -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건설 및 각종 지역축제 사업, 인허가 사항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
- 주민의 정보 접근성 보장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인터넷 상시공개 및 정기적 시보 공개, 열람 수수료 폐지
- 정보공개 책임성 강화
 - 정보공개 실명제 도입, 담당 공무원 책임성 제고

자전거도로 개선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건설교통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교통지도과					

□ 선정이유

- 서울시 사업으로 진행되는 자전거도로가 안전 및 교통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

- 서울시 관할 도로에 자전거도로를 설치·관리하고 있음.
-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는 안전에 취약하고 교통 흐름을 저해하고 있음.
- 관내 실정과 맞지 않는 정책 시행으로 주민 민원 증가

□ 제안내용

- 자전거 친화형 가로 개발로 '자전거 올레길' 조성 제안
- 교통흐름을 저해하는 구간에 대한 재배치하고 불필요한 곳은 철거 제안
- 차도 병행 설치시 명확한 구분으로 안전 확보 제안
- 차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 이용자 안전에 대한 대안으로 인도 폭을 확장 후 설치하여 안전성 확보 제안
- 휠체어도 이용 가능하도록 기존 자전거도로 폭 확장 제안
- 주요 자전거도로 내 편의시설 설치 제안

※ 자전거 올레길

- 우리 구내 자전거 타기 좋은 가로를 선정, 조성하여 안전한 자전거 길 관리
- 자전거 추천도로를 레저형과 생활형으로 구분 관리

기타과제 노원구청 조직개편 필요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총무과					

□ 선정이유

- 현재의 조직체계는 국별 성격과 배치되는 부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가 있고 부서간 유기적 관계를 고려하지 않고 구성되어 있음.
- 또한 당선자가 제시하고 있는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관련 부서의 기능강화 및 역할조정 등 조직개편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또한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 등의 도시계획과 건설분야가 비대하고 문화, 복지, 환경관련 부서가 취약한 현재의 조직구조로는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실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됨.
- 조직개편 방안에서 중요한 것은 규정목표를 달성하기위해 국별 배치 부서들이 상호연관성과 유기성을 가지는 바임.
- 따라서 구청장 취임 후 규정목표에 근거해서 부서신설 및 폐지 또는 조정 등의 조직개편을 할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 구청장 직속의 정책관련 부서의 신설 또는 행정관리국 산하의 창의혁신과와 도시관리국의 정책사업기획단을 통합하여 독립적 부서로 변화시킬 필요가 있음. 이는 규정목표를 구체적으로 실현하기위한 정책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임.
-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도시계획과 건설 등 관련 부서를 통합하여 도시계획국 같은 1국으로 전환하고 행정관리국,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으로 산재되어 있는 환경관련 부서(산업환경, 청소행정, 공원녹지, 치수방재)와 교통을 묶어 환경교통국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 준비위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재정경제국에 포함되어 있는 산업환경과의 경우 지역산업과 경제를 총괄하는 부서와 환경전담부서로 분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문화과와 홍보체육과를 조정·통합 운영할 필요가 있음. 문화와 체육 업무를 묶어 문화체육과를 신설하고 홍보업무를 기획예산과 업무에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을 고려
- 부서별 명칭 중 현대의 행정개념에 맞지 않는 부서의 경우는 부서의 명칭변경과 더불어 역할의 변경을 검토해야함.
(예 : 청소행정과 → 자원순환과 등, 치수방재과 → 물관리과)
- ※ 전라남도 강진군의 경우처럼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위해 국, 과별 체계를 팀별 운영체계로 정비하자는 의견도 있었음.

산업환경과 조직 개편으로 노원구 환경행정 통합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산업환경과					

□ 선정이유

- 현재의 산업환경과는 지역경제 발전, 소상공인 지원 등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무와 관내 폐기물 배출 업소에 대한 규제와 단속이 주 업무임.
- 공원녹지과, 치수방재과, 산업환경과 등 흩어져 있는 환경 관련 업무 재편 및 관계부처간의 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구조 마련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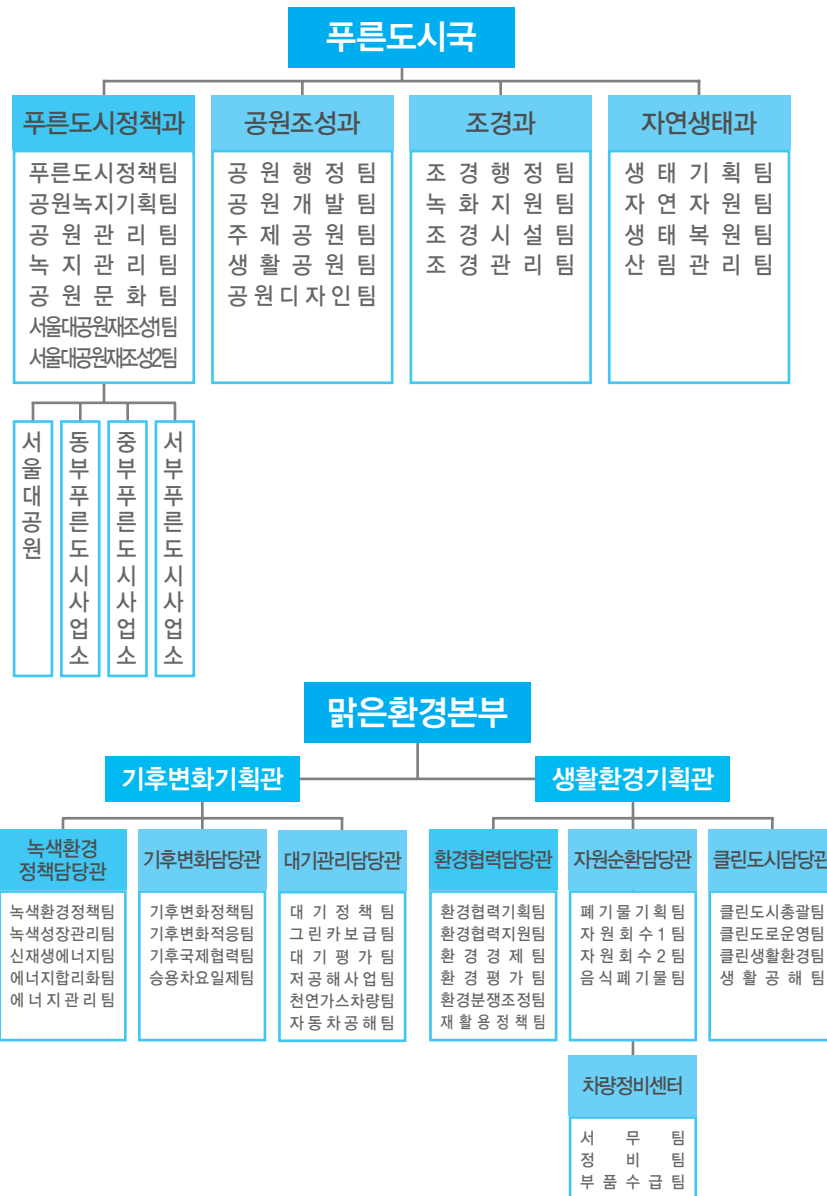
□ 제안내용

[서울시 행정조직] 예시

- 푸른도시국 - 공원녹지, 조경, 산림, 생태공원 등 도시 환경 관련 업무 총괄
- 맑은환경본부 - 에너지, 대기, 하천, 자원순환 등 에너지 정책 및 환경 기획 업무 총괄

[전주시 행정조직] 예시

- 예술도시국 - 도시디자인, 하천, 공원, 산림, 환경정책 관련 업무 총괄
 - 아트폴리스과 : 도시디자인 / 생태복원과 - 도심생태, 하천복원, 하천관리 / 푸른도시조성과 - 공원, 산림관리 / 환경과 - 환경정책, 기후변화대응, 체험시설관리 등



자원재순환 시스템 마련을 위한 과 명칭 변경 제안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주민생활지원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청소행정과					

□ 선정이유

○ 청소행정과의 명칭과 역할에 대한 재고 필요

- 현재의 청소행정과는 ‘폐기물관리팀, 재활용팀, 시설관리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재활용팀은 재활용센터 운영, 음식물쓰레기 관리, 청소환경 체험학교 진행을 주업무로 하고 있으나 자원순환을 통한 에너지 저감 대책 및 주민홍보, 참여 대책 수립 필요

□ 제안내용

○ 명칭 변경 제안

- 청소행정 업무를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토대로 하는 발상의 전환 필요 (기존의 생활폐기물 처리 업무에서 자원 순환 업무로)
- 예시) 전주시 ‘자원관리과’ / 서울시 ‘맑은환경본부 - 생활환경기획관 - 자원순환담당관’ / 순천의제21 2704 프로젝트 등

기존사업 대한 재검토 필요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자치행정과					

□ 선정이유

- 상계2동 복합청사의 경우 예산확보도 전혀 되지 않은 상황이라 건축을 재고하여야 함(중단 혹은 리모델링 수준).

- 중계2·3동 공공복합과 월계헬스케어센터 등은 층별 용도에 대하여 필요성과 주민욕구조사 등이 필요하며 이에 맞추어 내용을 정해야 할 것임.
- 각 센터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어떤 방향으로 보장할 것인가를 고려하여 구성해야 할 것임.

□ 제안내용

- 상계2동 복합청사, 중계2·3동 공공복합, 월계헬스케어센터 등 검토
 - 예산이 미확보된 상황에서 건물의 크기를 조정해야 한다면 조정이 필요하고 확보방안이 마련되지 못했다면 중단해야 함.
 - 각 층별 구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이 밖에도 국립자연사박물관 유치활동 및 시립체육관유치를 위한 예산 및 활동 등은 과도한 예산에 비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주민복지의 정도를 고려하여 계속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재정운영의 합리성 제고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재정경제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재무과					

□ 선정이유

- 현재 구금고인 우리은행과의 계약이 올해로 만료됨. 따라서 새로운 구금고의 지정이 필요한 상태임.
- 그동안 서울시 등과의 재정관리의 효율성 등을 이유로 지정해온 방식을 지양하고 구재정의 수익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국·공유지 매각시 원칙과 기준이 모호한 매각 등이 있을 수 있음.

□ 제안내용

- 구금고 지정방안의 개선

- 구금고 지정시 특정은행과의 일률적인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금리의 수시 변동을 감안하여 검토바람.
- 국·공유재산 매각기준 마련
 - 국·공유지 매각에 대한 통제시스템(조례 제정 등) 필요

주요시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설치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단기
과(원)	총무과					

□ 선정이유

- 구정운영의 전략적 목표를 수행하기 위해 관련 기구를 설치 운영할 필요가 있음.
- 구청장 당선자가 제시하고 있는 구정목표와 방향은 기존의 노원구정의 혁신적 변화를 전제로 하고 있음. 따라서 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노원의 근본적 변화와 미래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와 민관협력이 수행되어야 함.

□ 제안내용

- 구정개발연구원과 같은 주요시책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 설치
 - 인구 62만명의 노원구는 다양한 도시문제가 상존하고 있음.
 - 이러한 문제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주요시책을 체계적·전문적으로 조사분석함은 물론 당면과제에 대한 연구 및 학술활동을 통해 구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노원구의 관내 민간역량과 대학자원을 활용한 지역혁신네트워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 당선자의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민·관 파트너십 구축이 필수적임.

- 노원구에는 다양한 시민사회역량이 상존하고 있음은 물론 서울산업대학교와 광운대학교, 서울여자대학교, 인덕대학 등 인적·물적 자원이 존재함.
 - 따라서 단순히 이들 자원에 대해 지원을 하는 것을 넘어 이들 자원이 구정 목표를 시행하는 과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혁신네트워크 구성이 필요함.
- 구정개발연구원(가칭)을 설립하게 되면 과제별 위원회를 설치하여 시민 사회 인적역량이 참여하도록 하고 관내 대학에게 전문적인 지역혁신 전략 연구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중심 녹색복지도시 노원’을 만들기 위한 전략과 세부시행계획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할 수 있을 것임.
 - 구정개발연구원 설치가 어렵다면 이러한 취지에 부합하는 위원회 또는 전문부서의 설치를 통해서 이러한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노력할 필요가 있음.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의 형평성과 합리적 기준마련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기
과(원)	자치행정과					

□ 선정이유

- 사회단체 설립과 보조금 지원의 심사평가 부실
- 심사위원회의 위원구성의 책임성 결여 및 폐쇄성

□ 제안내용

- 조례개정을 통한 사회단체 설립과 보조금 지원을 위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보고서)기준 마련
- 심사위원들의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정보공개
- 사회단체보조금 신청 단체의 사업에 대한 주민평가제도 도입
 - 사회단체의 사업계획을 구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고 주민들이 사업계획을 평가할 수 있도록 하여 이 결과를 사회단체보조금 심의에 일정비율 반영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단계적 축소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행정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중장기
과(원)	총무과					

□ 선정이유

- 비정규직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임. 저임금과 불안정한 노동에 시달리는 비정규직의 지속적인 증가는 내수소비의 하락과 국내 산업의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음. 따라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동안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문제는 전 사회적으로 논의되어 온 문제였음.
- 특히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정규직 전환을 시도하였으나 일부만 무기계약직으로 전화되었을 뿐 오히려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의 분야에서는 무기계약직 전환에 앞서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사례가 있어 왔음. 이는 사실상 민간위탁이 아닌 청소용역업체로부터 인력을 파견 받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것임.
- 정규직인 공무원과 비정규직과의 1인당 월평균 임금 격차는 소속과 비정규직의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음. 민간위탁으로 간접 고용된 비정규직의 경우 중간에 위탁업체를 고려하면 직접고용 비정규직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이에 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의 일환으로 기간제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으로 전환할 시 임금상승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에 비정규직 문제를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정규직화에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음.

□ 제안내용

- 노원구에서 직·간접적으로 채용하고 있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고용불안과 저임금으로 인한 사회불안요소를 해소하고 공공기관 주도로 사회적 비정규직 문제를 해소함.

※ 실행방안

- 1단계 : 노원구 조직현황 전면 조사
(정규직, 비정규직의 고용형태와 임금조건은 물론 근무형태를 포함한 전면조사를 통해 상시근로형태의 비정규직의 정확한 진단 실시)
- 2단계 : 직접고용 기간제 근로자에 대한 무기계약전환
(정부의 비정규직 무기계약 전환과 상관없이 직접고용 특히 상시근로의 경우 정규직 전환 시행)
- 3단계 : 민간위탁 간접고용 인력에 대한 직접 무기계약 전환

도시관리국 기타 안건 제안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도시관리국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사업별조정
과(원)							

□ 제안내용

○ 세입자 주거안정 지원 서비스 제안(주택과)

- 우리 구 세입자 비율이 42%로 주거안정 지원 정책이 필요(2005년)
- 열악한 주거 환경에 대해 행정지도를 통한 개선 필요
- 세입자 민원 사안들에 적극적 상담 및 지원 제안(주민자치센터 활용)

○ 사업간 연관성 검토 제안(도시개발과, 자치행정과)

- 노원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사업과 상계2동주민문화복합청사 계획간의 사업 연관성 검토 제안
- 서울시 의견으로 종 상향 어려운 상황으로 획지구역으로 신중한 접근 필요
- 획지구역 변경시 30%의 기부채납이 필요한 상황에서 소유주들의 반대 있음.
- 종 상향으로 인한 설계변경도 미리 검토 제안

건설교통국 기타 안건 제안

담당부서		사업 진행을 위한 방안					사업시행시기
국(소)	건설교통국	도시관리국	조례제개정	예산마련	기구설치	기타	사업별조정
과(원)							

□ 제안내용

- 상계5동 공영주차장 주차면 증설사업 재검토(건설관리과)
 - 단순 주차면 8면 증설을 위한 사업예산 재검토 필요
 - 구소유 시설물(예술문화회관 등)의 주차공간을 야간 개방하는 방안 제안
 - 주차 여유가 있는 공동주택단지와 협의하여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수용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정도에 따른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 제안
- 노점 정비 사업시 신중한 사업검토 제안(건설관리과)
 - 노점상의 생존권을 고려하는 사업 시행안이 필요
 - 노원구 691개 노점이 있고 신 발생 노점과 통행 장애 발생시 단속
 - 현 노원역 사거리에는 디자인 노점으로 노점상과 합의하에 진행 중임.
 - 노점상 단속, 철거시 통행인 많은 시간대를 피하자는 제안
- 사랑의 구두방 사업 등은 복지 관련 분야로 업무 이관 제안(건설관리과)
 - 통합복지전달체계 구축으로 업무 일원화 방안으로 제안
- 청소차 차고지 관련 재건대 사용에 대한 사업 검토 제안(건설관리과)
 - 최종 결정이 안되어 있는 상황으로 관련부서와 협의 중
- 석계역 문화광장 주변 차선 확대 제안(치수방재과)
 - 문화광장 조성시 1개차선 확대를 통한 교통흐름 개선 효과 기대
 - 버스정류장 차선 확대로 원활한 교통흐름 효과 기대

시민참여 좋은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 활동보고서

○ 공동위원장

- 나해집 (기독교장로회 평화운동본부 공동의장)
- 서종화 (예원예술대학교 객원교수)
- 이상희 (민주노동당 노원구위원회 위원장)

○ 기획조정분과 위원장 : 송재혁 (교육복지재단 교육과미래 상임이사)

○ 교육행정분과 위원장 : 홍기준 (한국지방행정학회 회장, 경희대학교 평화복지대학원 교수)

○ 생활환경분과 위원장 : 김재현 (건국대학교 환경과학과 교수)

○ 도시교통분과 위원장 : 이영한 (서울산업대학교 도시건축연구소 소장, 건축학부 교수)

○ 발행일 : 2010년 7월

○ 발행처 : 시민참여 좋은노원만들기 준비위원회